
국립국어원 소식

I.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1. 한글날 축제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

한글을 재조명하는 7일간의 한글 이야기(<http://www.hangeulnal.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글 반포 제563돌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글 주간(2009. 10. 6-12)을 정하고, ‘한글,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주제로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각종 행사와 대회를 마련하였다. 한글 주간 행사에는 국립국어원과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등 한글 단체와 국립국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 예술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 주제: 한글,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
- 기간: 2009. 10. 6.(화)~12.(월)
- 장소: 경복궁, 올림픽 파크텔, 세종문화회관, 전국 일원
- 주요 행사
 - 1) 한글 공간전: 10. 8-11/경복궁 흥례문 앞(개막식: 10. 8. 10:20-11:00)
 - 2)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10. 7-9 /올림픽 파크텔
 - 3) 한글날 경축식: 10. 9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4) 집현전 한글 학술 대회: 10. 9-10/경복궁 수정전
 - 5)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초청: 10. 6-10
 - 6) 문화 행사: 10월, 전국

7) 아름다운 우리말 100선(한글 설문조사): 10. 8/발표

2.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 “외국어 학습서전” 개최 - 옛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어 공부를 했을까?

국립국어원의 디지털 한글박물관(www.hangeulmuseum.org)에서 한글날을 기념하여 네 번째 특별 기획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외국어 학습이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외국어 구사는 점점 더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교재들과 학습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외국어 공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 듯하다. 이런 외국어 공부의 어려움을 옛 사람들도 겪었을까? 또 옛날에는 어떤 외국어를 어떤 교재로 어떻게 익혔을까? 디지털 한글박물관의 <외국어 학습서전>에서 이런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디지털 한글박물관 <외국어 학습서전>에서는 『노걸대』, 『박통사』와 같은 대표적인 회화서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다국어 사전과 같은 『방언집석』까지 총 35종의 조선 시대 외국어 학습서와 사전류를 중국어관, 일본어관, 몽골어 관, 만주어관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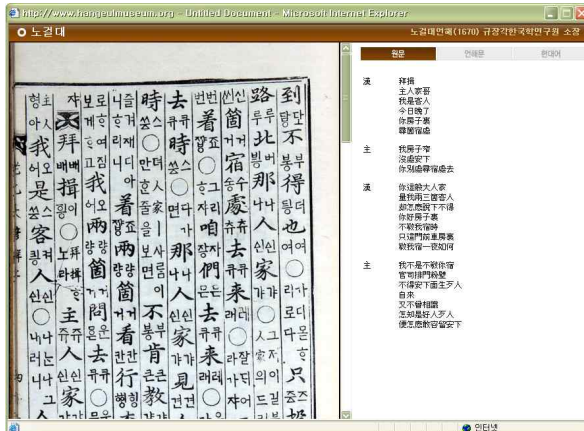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이번 특별전은 회화서의 일부 내용을 원문뿐만 아니라, 당시의 언해문 (한글 번역문)과 함께 현대어를 함께 제시하여 책의 겉모습만 훑어볼 수 밖에 없는 오프라인 전시와 달리 온라인 전시회의 장점을 살려 일반인들도 쉽게 조선 시대 외국어 학습서의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3〉.



〈그림 3〉



〈그림 4〉

별도로 마련한 기획전에서는 조선 시대에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설치했던 사역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회화서 『노걸대』에 묘사된 역학생도들의 외국어 학습 과정을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4). 또한 당시에 역관이 되기 위한 시험은 어떤 식으로 치르고 채점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현재 남아 있는 역과 시험 답안지도 전시하고 있다.

〈외국어 학습서전〉은 10월 9일 한글날부터 언제든지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www.hangeulmuseum.org)을 방문하면 관람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특별 기획전인 〈한글 국보·보물특별전〉, 〈옛 한글 편지 특별전〉, 〈한글 음식조리서전〉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3. 제4회 국립국어원·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SBS(대표이사 사장 하금열)는 제4회 국립국어원·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발표 주제: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연구
- 시간: 2006년 10월 16일 (금) 15:30~17:30
- 장소: 방송 회관 3층 회견장
- 발표자 및 발표 내용
 -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의의 및 개요: 손범규 (SBS)
 - 방송 언어와 외래어 단어 형성: 노명희(성균관대)
 - 아나운서의 외래어 [f], [v] 발음 실태 분석: 박숙영(고려대)·최혜림 (SBS)
 - 방송에서의 외국어(투) 구문 사용의 문제점: 강미영(국립국어원)
 - 방송 프로그램의 외래어 사용 실태에 관한 계량적 연구: 김순임(국립국어원)
 - 방송 뉴스의 외국어 전문어 사용: 정희창(국립국어원)
 -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지침 마련을 위한 시론: 조태린(국립국어원)

양 기관은 지난 2005년 10월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은 이후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방송 언어의 경어법’,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언어’,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 등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해 왔다. 올해에는 그동안 적지 않은 논의와 개선 노력이 있어 왔지만, 당위성과 현실성 또는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늘 고민과 회의를 반복 했던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표 당일에는 SBS 아나운서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은 물론이고 많은 아나운서 지망생, 대학 및 대학원의 국어 또는 방송 관련 학과 학생 등이 참여하였으며, 토론 시간에도 다양한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립국어원·SBS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모습〉

4. 국립국어원과 한국사회언어학회, 공동 학술 대회 개최

남한과 북한의 말이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 다시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 언어 차이와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해 온 국립국어원이 2009년 11월 7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사회언어학회(회장 이진성)와 남북 언어 문제에 관한 공동 학술 대회를 열었다.

새터민들이 남한 생활의 주된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언어의 차이이다. 서로 다른 억양 외에도 생소한 외래어와 한자어는 의사소통을 더욱 힘들게 한다. 단적으로, 2008년 국립국어원이 펴낸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에 의하면 교육 현장에서 남북한 용어의 이질화 현상은 심각한 미래를 예고한다. 남북한 문법 교과서의 경우 서로 대응하는 105개 학술 용어 가운데 동일한 것은 35.2%인 37개에 그쳤다. 남한의 용어는 한자어 명사들의 결합으로 이뤄진 합성어가 많다면 북한의 경우, 고유어 선후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학술 대회는 남북 언어 문제에 대한 그간의 이런 연구 흐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학술 대회에서는 김하수 연세대 교수의 기초 강연을 필두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가를 정리하고, 민족어 통합을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향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 발표자와 발표 제목

- 차재은(경기대): 남북한 언어 통합 연구의 현황
- 홍중선(고려대): 남과 북의 통합 국어사전 편찬과 민족어의 통일
- 손영훈(한국외대): 카자흐스탄의 언어 환경 변화와 민족 통합
- 양수경(서울대): 새터민 언어 적응 실태와 교육 방안
- 이상혁(한성대):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향후 과제: 북쪽의 조선어학 연구 경향 분석과 그 데이터 처리 문제



〈한국사회언어학회 이진성 회장의 인사말〉



〈종합 토론 모습〉

5. 국립국어원과 한국어교육학회, 공동 학술 대회 개최 -재외동포의 민족어와 그 교육 현황 및 과제를 논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살아온 지난 60년 동안 남북한의 언어가 상당히 달라져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조심스럽게 통일이 준비되는 지금, 우리말의 동질성 회복은 사실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재외 동포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남북의 언어뿐 아니라 재외 동포들의 우리말도 서로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재외 동포들이 우리말을 점점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민족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짚어 보는 학술 대회가 열렸다. 국립국어원이 2009년 11월 27일 서울 상명대 앞 에이더블유(AW)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어교육학회(회장 민현식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바로 그 자리였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남북 국어 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 주 최: 국립국어원
- 주 관: 한국어교육학회
- 일 시: 2009년 11월 27일(금), 09:30~17:00
- 장 소: 에이더블유(AW) 컨벤션 센터 3층 아젤리아 홀

이날 학술 대회는 제1부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과 제2부 '해외 민족어 교육'으로 나누어 치러져 모두 아홉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부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국어 교육'을 주제로 전수태 고려대 교수가 통일을 대비한 국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필두로 논하였다. 이어 북한 사범대 교원 출신인 이희숙 박사가 북한의 국어 교육 실태를, 연세대 이원경 교수가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독어 교육에 대해서 이

야기하였다.

2부에서는 ‘해외 민족어 교육’을 주제로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견 학자들이 초빙되어 각 지역의 민족어 및 민족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하였다. 또한 고려대 윤인진 교수가 재외 동포 사회의 변화와 관련지어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하며, 국립국제교육원 김영춘 교수가 세계 각지의 교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 발표 일정

개 회 식		
09:30-09:50	● 등록	사회: 박재현(상명대)
09:50-10:00	● 개회사: 민현식(한국어교육학회장) ● 축 사: 권재일(국립국어원장)	
주제 발표 1부	주제: 통일을 대비한 국어 교육	사회: 정희원(국립국어원)
10:00-10:30	[발표 1] 통일 시대 국어 교육의 방향 ● 전수태(고려대, 전 국립국어원)	
10:30-11:00	[발표 2] 북한의 국어 교육 실태 ● 이희숙(국민화합연구소, 전 북한 사범대 교원)	
11:00-11:30	[발표 3] 독일 통일기의 독어 교육 ● 이원경(연세대 독문과)	
11:30-12:40	점심 식사	

주제 발표 2부	주제: 해외 민족어 교육	사회: 지현숙(배재대)
12:40-13:10	[발표 4] 재외 동포사회의 변화와 미래 한국어 교육의 방향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재외한인학회장)	
13:10-13:40	[발표 5] 미국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이선근(뉴욕 한국어교육원장)	
13:40-14:10	[발표 6] 남북 언어 규범 차이와 중국 조선어 규범 문제 ●김영수(연변대 조선어문과)	
14:10-14:40	[발표 7] 재일 동포의 민족어 교육과 언어 사용 양상 ●조의성(동경외대 한국어과)	
14:40-15:00	중간 휴식	사회: 이정희(경희대)
15:00-15:30	[발표 8] Koreans and Korean language at Central Asia ●이 브로니슬라브(니자미 사범대 한국어과)	
15:30-16:00	[발표 9] 재외 교민의 현지 한국어 교육 문제 ●김영춘(국립국제교육원, 전 북경국제한국학교장)	
종합 토론	종합 토론	좌장: 송향근(부산외대, 이중언어학회장)
16:00-17:00	청중 질의응답	

6. 수화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행사명: 한국 수화 발전 및 수화 사용 인구 확충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주 최: 한국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 일 시: '09.11.18.(수) 15:00~18:20
- 장 소: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 참 석: 농아인협회 및 지회·농학교 관계자, 수화 통역과 전공생 및 수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11월 18일, 수화 발전과 수화 사용 인구 확충을 위하여 그간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각 전문가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1층의 아트홀 '봄'의 객석에서

열렸다. 한국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이날의 토론회는 ‘한국 수화 발전 및 수화 사용 인구 확충 방안 수립’이 그 주제로 2000년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수화 관련 연구와 사업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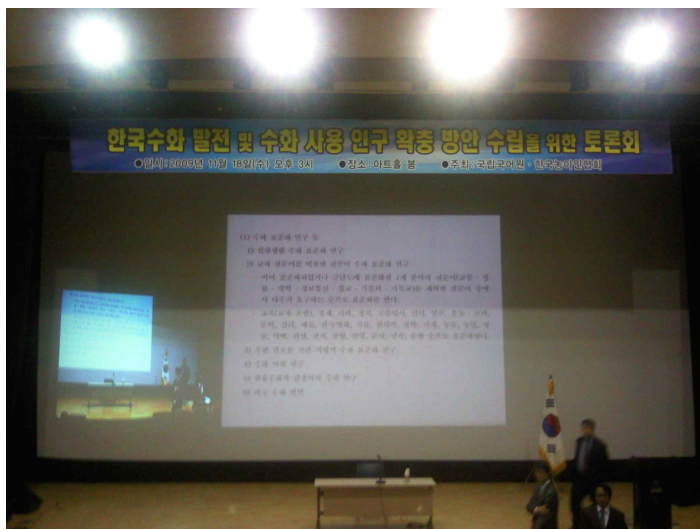
김승국 한국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수화를 표준화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착수한 수화 표준화가 정책의 출발이었음을 설명하였다.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2009년 사업까지 표준화된 수화 단어는 약 18,000단어에 이르며 특히 이는 법률·교통·의학·정보 통신·종교 등 전문 분야를 포괄하며 수화 문형을 밝힌 수화 문형 사전을 편찬했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일이었다고 자평하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화 사전에 등록된 어휘는 약 7~8000개 수준이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여전히 많다. 한국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가 제안한 향후 과제로는 교과서 용어의 수화 표준화, 지명의 수화 표준화를 비롯하여 수화의 어원 및 관용수화에 대한 연구, 수화 문법에 대한 연구, 수화 습득 및 수화 사용 효과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다. 수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중급 교재의 개발도 시급하며 수화 사용 청각 장애인을 위한 국어 교육 방법, 교재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향후 정책 과제 선정을 위한 수화 연구 문헌 125편에 대한 분석·조사와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및 수화 통역사, 청각장애 학교 교사, 수화 통역과 학생, 연구자 등 수화 사용자 2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수화 표준화는 여전히 필요하며 이 중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문어의 수화’ 표준화(64.7%)가 시급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 분야의 용어 중에서는 교육(59.07%), 경제(55.44%)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조사되었다. 수화 통역사 84명에 대한 조사에서 수화 통역이 어려웠던 경우는 1위 법률, 의료 등 전문어

(59.52%), 2위 지명, 인명, 단체명(10.71%), 3위 신어·외래어(2.38%) 등으로 파악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한편 표준화된 수화의 보급·활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국어원과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위원회가 그동안 발간한 한국 수화 사전과 전문 용어 수화, 수화 교재 등은 모두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공개 자료실에 올라와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토론회 전경〉



〈수화로 하는 애국가 제창〉

7. ‘2009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회장 안동언)와 함께 12월 4일 국립국어원 1층 강당에서 『2009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 대회는 공학자들이 1998년부터 10년간 추진되었던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와 같은 언어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소 침체된 한국어 정보 처리 분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립국어원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서 말의 구슬은 준비되었으며, 이제는 이 서 말의 구슬을 꿰어야 할 때라고 이 대회의 성격을 간략하게 잘 정리하였다.

○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22팀이 응모하여 많은 사람이 경진 대회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심을 거쳐 12팀이 본선에서 겨루어 대용량 언어 자료

를 구조화한 검색 시스템인 **꼬꼬마**(이동주 외 2명)(서울대)
(<http://rocker.snu.ac.kr:8080>)가 **대상**을 차지했다.(자세한 수상자 내역
은 붙임 1 참조)

○ 대상을 받은 서울대 이동주 씨는 **한국어가 훌륭하지만 공학도에게
는 넘어야만 하는 거대한 장벽이라고**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을 밝혔으
며, 이번 경진 대회를 통해 국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붙임 2)

○ 국어원에서는 경진 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계속 이어져서 한국어
정보 처리 분야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
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본선 진출 작품은 모두 공개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수상자 명단과 작품 개요

상장	수상자	출품작 명칭(특징)
대상	이동주, 연종흠, 황인범 (서울대)	꼬꼬마: 세종 말뭉치 검색 시스템
		세종계획의 언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누구나 쉽게 검색하게 함으로써 기 존의 전자 파일로부터 검색하던 불편함 해소
금상	신준철, 김홍순, 이용훈, 김소형(울산대)	세종 말뭉치 검증 및 원시 말뭉치 품사 & 동형 이의어 태깅 시스템
		단어 형태가 같아도 뜻이 다른 동철이의 어(예, 먹는 사과(砂果)와 잘못에 대한 사과(赦過))의 의미를 구분하여 처리하 는 프로그램

은상	송상현, 윤영민(고려대)	NARA Ver. 2.0: 세종 한일 병렬 말뭉치 온라인 검색 인터페이스
		한일 병렬 말뭉치로부터 한국어 일본어 간 비교 정보 검색이 가능
은상	김세종, 이용훈, 이종혁(포항공대)	우선순위 제시를 통한 자동/반자동 의미 중의성 해소 말뭉치 구축 도구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여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 자료 구축 도구
동상	이현아, 김신혁, 조현민, 임정훈, 김민관, 조수민(금오공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작문 도우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작문할 때 단어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동상	이지민, 이근배(포항공대)	입력 문장 특성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구조 분석기 및 개발 도구(DDK)
		구문 분석 말뭉치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추가의 구문 분석 자료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도구
동상	박혜웅(날리지큐브)	세종 계획 말뭉치를 이용한 의미 지식베이스 구축 및 검색 시스템
		세종 말뭉치와 같은 대용량 언어 자료를 이용하여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동철 이의어 구분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 자료 구축 도구
장려상	김진태, 최학운(국민대)	구문 분석 말뭉치 검색 시스템
		구문 분석 자료로부터 문장 구조 정보를 찾아 주는 프로그램
장려상	박일남, 장우석(국민대)	세종 말뭉치 보조 활용 툴
		문서의 utf-8, utf-16 등과 같은 인코딩 정보를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
장려상	최맹식(강원대)	KNUKA_OOVTagger(그누가_미등록어 태거)
		사전에 미처 올라 있지 않은 단어를 인식하여 처리해 주는 시스템
장려상	강민규(국민대)	한국어 복합 명사 용례 분석 프로그램
		복합 명사 목록으로부터 구성 단어 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
장려상	심보준((주)엔씨소프트), 조은경((주)다음커뮤니케이션)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 용례 추출기 '나무-잎'
		구문 분석 자료로부터 문장 구조를 찾아 주는 프로그램



〈경진 대회 발표자 모습〉



〈본상 수상자들과 함께〉



〈권재일 원장, 이동주 대상 수상자, 안동연 회장〉

8. “국립국어원-국방기술품질원, 국방 과학 기술 용어 표준화를 위한 협약 체결”

UAV(무인 항공기), OICW(개인 다목적 전투 무기), EOTS(전자 광학 목표 획득 장비) 등 각종 무기의 첨단화와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작전 개념의 수립 등으로 인해 국방 분야에서 쓰이는 과학 기술 용어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정재원)은 9월 30일(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 과학 기술 용어를 표준화하고 국방 분야에 바람직한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립국어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이 2008년부터 3년 단위로 추진하는 국방 과학 기술 용어 표준화 사업 진행과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발간 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국어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추진되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8년에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

양 기관은 국방 과학 기술 전문 용어의 체계화와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국방 과학 기술 전문 용어의 보급 및 국방 분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 국방 분야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 국방 과학 기술 분야 전문 용어의 표준화, 체계화 ▲ 국방 과학 기술 전문 용어의 보급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방 과학 기술 보급의 바탕이 되는 국방 과학 기술 용어 표준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국방 분야 종사자 및 일반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내부망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장과 국립국어원장의 협약체결서〉



〈업무협약 참석자 모습〉

9. 국립국어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품질 향상을 위한 협약 체결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1월 11일(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과서를 비롯한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은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표기·표현의 최고 전문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교과서 내용 개발과 교육의 최고 전문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민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의 품질 향상에 뜻을 모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가르치는 교사가 신나고 배우는 학생이 즐거운 교과서란 어떤 것일까? ‘내용이 알차고 표기, 표현이 완벽한 교과서’가 정답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과서는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교과서를 위해 국립국어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힘을 모으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교과서 언어가 가장 모범적인 한국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07년에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국정 교과서 한 가지만 있었던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등의 기본 과목도 검정 교과서로 바뀌어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중1 국어 교과서는 2009년 검정 결과 23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교과서가 다양하더라도 표기·표현은 일관되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국립국어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의 협약을 계기로 교과서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공언어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 체계 개발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권재일 국립국어원장과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업무 협약 체결식 모습〉

II.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1.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2권 발간

- 중·고급 교재, 자녀 방문 학습지, 교원 양성 프로그램 등 확대 계획

국립국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9년 9월 30일 한국어 교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권, 2권을 발간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2009년 1월, 국립국어원)를 실시하는 한편, 연구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단계적·수준별 한국어 교재를 발간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발간된 이번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권」은 결혼여성이민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한국어 교육 내용을 담은 1차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이번에 발간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권, 2권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언어 편’과 ‘문화 편’으로 구성된다. ‘언어 편’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가 자주 접하는 주제, 상황, 기능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고, ‘문화 편’에서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권마다 25개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앞부분 20개 단원이 언어 편을, 뒷부분 5개 단원이 문화 편을 다루고 있다. 특히 1권에서는 한글 자모를 익힐 수 있는 ‘예비 편’을 두어서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교재는 우선 유관 부처의 협조 아래 전국 다문화 센터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교재 PDF 파일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

go.kr) 및 누리-세종학당 누리집(www.sejonghakdang.org, 10. 9.부터 시범 운영) 등에 공개되어 원하는 수요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재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02-2669-9745, 박정진 연구사)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3권, 4권(중, 고급 단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방문 학습지’, ‘다문화 가정 등 주한 외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교원 양성 프로그램’, ‘교원 대상 지도 지침서’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업을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1(표지)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2(표지)

2. 국립국어원, 초등학생을 위한 통신 언어 교육 자료 만화책 발간

10월 9일 한글날, 인터넷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통신 언어 예절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작한 만화 형태의 교육 자료가 나왔다. IT 강국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국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품위 없는 통신 언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생 등 아직 인성 교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무심코 악성 댓글을 달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신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국민 전체의 통신 언어 문화 수준을 고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사)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대표 민병철)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건전한 통신 언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용 만화책 이북(e-book) 형태의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전자 파일을 배포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 학생들이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과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누리집(www.

sunfull.or.kr)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통신 언어의 부작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2008년에 이미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통신 언어 홍보 책자(사이버세상 댓글 날다(청소년용), 사이버세상 언어 여행(일반인용))를 2종 개발하여 각급 학교와 전국 관공서, 국어 책임관, 은행, 군부대 등에 배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년에 제작한 홍보 책자가 중고교생 등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데 반해, 이번에는 대상 연령층을 낮추어 초등학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초등학교생들이 부담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제작하였으며, 대량 배포가 용이하도록 종이 책자가 아닌 전자책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메아리의 바라기별 대모험-행복열매를 찾아서”라는 54쪽의 이 만화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초등학교 김철래 교사를 비롯하여 현직 초중고 교사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정보통신윤리교육연구회 회원들이 금년 6월부터 수차례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연두스튜디오의 이주한 작가와 정혜란 화가가 만화 작업에 참여하여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추어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딱딱한 교양 만화가 아닌 부드러운 그림체와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낸 이 만화에서는 인터넷에서 친구들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그 별로 행복열매를 따오라는 임무를 받아 여행을 떠난 주인공 메아리가 바라기별이란 곳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만화는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 및 선פל달기국민운동본부 누리집(www.sunfull.or.kr)에서 볼 수가 있으며,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각급 학교에 전자책 파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때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이 만화를 교육 자료로 손쉽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활동지’(한글 파일)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실에도 ‘교수 활동지’를 올려놓아 누구든지 내려받기를 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신언어 교육자료 만화책 표지〉

3.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말을 잃은 아이들’ 제작·방송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YTN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제목: ‘말을 잃은 아이들’)를 제작하였다. 제56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말을 잃은 아이들’ 방송 개요〉

- 방송명: “말을 잃은 아이들”
- 제작 목적: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함

- 다문화 가정 자녀 증가 추세(행정안전부, '09.5월)
- 25천 명('06년) → 44천 명('07년) → 58천 명('08년) → 100천 명('09.5월)
- 연령별 다문화 가정 자녀 비율(행정안전부, '08.7월)
- 만6세 미만: 57.1% → 만7~12세: 32.2% → 만13~15세: 6.3% → 만16~18세: 4.3%

- 방송사/방송일시: YTN/ 2009. 10. 9(금) 10:15
/ 10. 9(금) 21:15
/ 10. 10(토) 01:10

* 해외 방송 시청 시간을 고려하여 3회에 걸쳐 교차 편성하였음

○ 주요 내용

- ① 다문화 가정 자녀 증가 추세 및 이들의 언어 발달 현황 파악
(사례 인터뷰 등)
- ②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문제점 점검
- ③ 일본의 다문화 가정 대상 일본어 교육 지원 정책 소개
- ④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방향 및 대안 제시 등

4. 국립국어원·방송문화진흥회 공동기획

-MBC 한글날 특집 <실험 다큐 - 말의 힘>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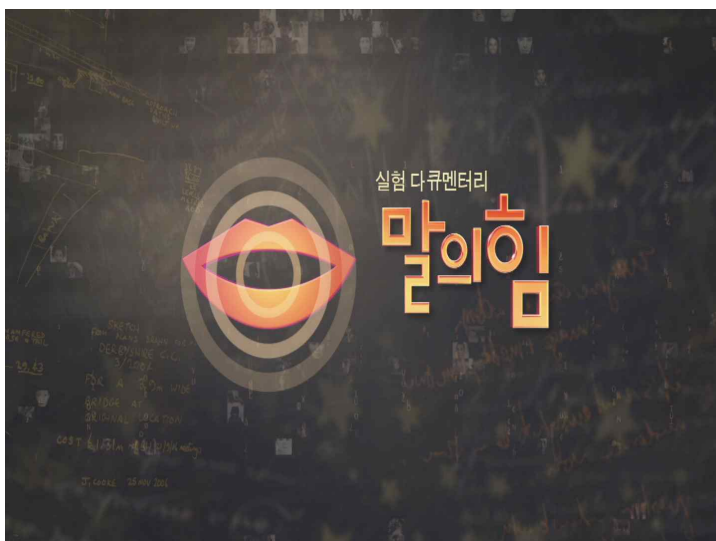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생각지도 못한 힘이 있다면? 원래 어려운 거라 여기고 사용하던 공공 언어가 쉽게 바뀔 수 있다면? 한글날인 10월 9일 오후 6시 50분 MBC 텔레비전에서 말의 힘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과 공공 언어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난다.

○ 방송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이 참여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63돌이 되는 올해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주식회사 문화방송(대표이사 사장: 엄기영)과 2009년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방송의 관리 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와 공동으로 MBC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기획하여, 공공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한 실태 진단, 문제 제기, 대안 모색 등을 다루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막말의 영향력,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에 따른 인체의 변화, 언어의 심리적 지배력 등을 다루는 것을 또 한 축으로 하는 '말의 힘'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 실험과 현장 조사를 통해 흥미롭고 현실감 있는 다큐멘터리 완성

국립국어원과 문화방송의 사전 협의 단계까지 포함하면 약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이 다큐멘터리의 기획과 촬영 및 편집에 소요되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는 언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실험과 언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기존의 언어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이 특징인데, 막말과 좋은 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뱀폴 실험'과 '인체 변화 실험', 단어 카드의 내용이 피실험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언어 지배 실험' 등의 다양한 실험이 소개될 예정이며, 관공서, 법원, 병원 등의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자어, 외국어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실제의 현장에서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 등의 해외 사례와 1천 개가 넘는 공공 기관 서식 및 문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



〈사진 2.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5. 국립국어원, 포도주 상표명의 표기 시안 마련

- 수입 포도주 상표명의 표기 통일을 위한 첫걸음 내디더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이하, 외심위)의 검토를 거쳐,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지에서 수입되는 포도주의 상표명 4600여 개에 대한 표기 시안을 10월 13일 공개하고 의견

을 수렴하였다.

□ 수입 포도주 상표명 4600여 개의 표준 한글 표기안을 공개

국내 주류 소비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입 포도주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나 같은 상표명이 표기법에 맞게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언론의 보도에서도 표기의 혼란은 마찬가지이다.

까베르네 쇼비농, 까버네 쇼비농(X) ⇒ 카베르네 소비농(0)

썸뜨까이유 생떼밀리옹, 상뜨까이유 썸떼밀리옹(X) ⇒ 샹트카유 생테밀리옹(0)

이에 국립국어원은 프랑스 어 상표명 2160여 개, 이탈리아 어 상표명 1230여 개, 에스파냐 어 상표명 1240여 개 등 4600여 개에 대한 한글 표기를 해당 언어의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으며, 외심위의 검토를 거친 시안을 마련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의 공지사항에 10월 13일부터 공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시안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각 표기를 수정·보완하여 외심위의 심의를 거쳐 앞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6. 국립국어원, EBS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 방송 (10. 19.부터 17주간)

○ 120만 국내 외국인에게 살아 있는 생생한 한국어를

전체 혼인 건수 10쌍 중 1쌍이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되는 요즘, 국내 체류 외국인 120만 명(2009년 6월 말 기준)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었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EBS와 합

게 기획·제작한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을 10월 19일부터 2010년 2월 10일까지 EBS 지상파 TV(13:40~14:10)와 위성 채널인 플러스2(16:30~17:00)를 통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 어, 필리핀 타갈로그 어)로 방송하였다.

○ 배워서 바로 말해 보는 실용적인 한국어 강좌

최근 유관 부처, 자치 단체, 전문 연구 기관 등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여성 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의사소통 곤란’과 ‘문화적 차이’를 꼽는다. 이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한국어 교육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는 여성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어원과 EBS는 프로그램 제작 사전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찾아가 이주민과 한국어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수업을 참관하여 현장의 한국어 교육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당장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콩트 형태로 주요 대화를 제시하였으며, 문법 등 자세한 설명은 원어민과 한국인 전문가가 한국어와 현지어로 공동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재미와 이해를 높이려고 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마지막에 여성 결혼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외국인 진행자가 설명해 주는 ‘한국이 궁금해요’편을 두어서 이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연극배우이자 한국 주부인 필리핀 여성 결혼 이민자 자스민, 한국어가 좋아 한국에 온 미수다의 그녀들, 손요와 호영! 이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홍종명 교수와 함께 ‘외국인 실용 한국어(초급)’

의 진행을 맡았다.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외국인 실용 한국어(초급)’는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어 공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한 연구와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국립국어원은 교육 방송 제작 채널인 EBS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을 2007년도부터 제작·방송해 오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방문 학습지 개발’,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을 위한 교육 과정 및 전문 교원 양성 과정 개발·운영’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업을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1〉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 시작 화면

- 진행자: 흐엉(베트남 어), 홍종명 교수, 자스민(필리핀 어), 손요(중국어)



〈사진 2〉 콩트 형태로 제시되는 ‘오늘의 표현’ 화면



〈사진 3〉 여성 결혼 이민자가 실제로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한국이 궁금해요’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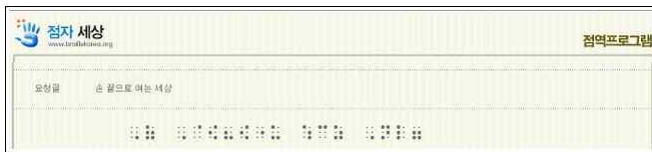
7. 11월 4일은 ‘점자의 날’, ‘점자세상’에 가 보자

- 국립국어원의 점자 학습 누리집 ‘점자세상’에 배울 거리 풍부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발표한 날인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손으로 읽기 적합한 6점 체계의 점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루이 브라유(1809~1852)의 탄생 200주년을 맞는 해이기에 ‘점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조명이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다. 83번째 ‘점자의 날’을 맞아 점자에 대한 온라인 강의, 한글과 영어를 점자로 바꾸어 주는 점역 프로그램, 점자 도서 파일 등 각종 점자 관련 자료가 모아져 있는 누리집 ‘점자세상’(www.braillekorea.org)에 가 보는 것은 어떨까?

‘점자세상’은 점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점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하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호식)이 손을 잡고 만든 누리집이다. 한글 점자에 대한 온라인 강의, 점자 규정 및 각종 점자 도서 파일, 점역·편집 소프트웨어, 점자 타자 연습 프로그램, 점역 교정사 시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이 누리집은 한글, 영어를 점자로 번역하고, 점자를 한글, 영어로 번역해 주는 점역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유일하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점역 교정사 분야의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인들도 점자를 쉽게 익히는 것이 가능하다. 점역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점자 명함이나, 각종 시설물 또는 상품의 점자 표기가 올바른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점역프로그램 사용 예〉

최근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달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녹음 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대체 자료가 개발되고 있어 점자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비율은 2.4%이며 현재 점자를 배우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시각 장애인의 48%가 65세 이상으로 후천적인 발생이 많고, 저시력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인 ‘점자’는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모든 국민의 불편 없는 언어 생활을 위하여 수화와 점자에 대한 연구와 교재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수화, 점자 등의 표준화와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월 공개를 목표로 온라인 영어 점자 강의와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학습 프로그램, 점자 연습 게임 등을 개발하고 있다.

8. 한글 게임으로 우리말 실력 겨뤄 봐요!

- ‘디지털 한글박물관’ 제2회 온라인 한글 게임 대회 개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11월 한 달간 누리꾼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글 게임 대회』를 연다. 이번 게임 대회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한글박물관(www.hangeulmuseum.org) 누리집을 통해 치러졌다.

○ 이번 온라인 한글 게임 대회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한글에 관한 상식을 넓히고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1:3 한글 퀴즈”와 “맞춤법 게임” 두 가지 게임으로 대회를 치렀는데 “1:3 한글 퀴즈”는 한글에 대한 상식과 국어 사용에 관

한 지식을 대결 형태로 겨루는 퀴즈 게임이고, “맞춤법 게임”은 게임을 즐기면서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게임이다.



〈1:3 한글 퀴즈〉



〈맞춤법 게임〉

○ 수상자 명단

■ 한글 퀴즈			
으뜸상(1명): 전자사전			
	1	박필류	unser
버금상(16명): 초등 만화 맞춤법 3권			
	1	김문백	flytosky
	2	김민혁	happy-kids1
	3	김종호	nemesiscr77
	4	김창태	govlqkqk
	5	박효진	sabine011
	6	양영숙	yys042
	7	옥영출	9k123
	8	우남주	mupupu
	9	우은영	lmarionettel
	10	이분희	silentvortex
	11	이윤경	kei331
	12	이지성	tnstn49
	13	이찬규	soundchan
	14	장고은	tabibito2628
	15	정승원	tlrksvy6906
	16	최진	choi1506
떨림상(30명): 문화상품권			
	1	김유정	fourkims
	2	김지현	geoul791
	3	김황곤	a11960069
	4	박미령	psddj
	5	박상민	99nameha
	6	박상률	sodaebak
	7	박은숙	woosuk82
	8	박지원	jwpark1116
	9	박현희	asyet1121
	10	배진명	rossa9980
	11	서경배	momo664
	12	서은진	peri664
	13	안경순	aksunya
	14	우승호	daree
	15	우연수	yeonsoowoo

	16	우영미	ejrwh
	17	윤지영	insomnia49
	18	이나리	ssiptuls
	19	이범국	lbyumk
	20	이상협	tkdguqdl76
	21	이승은	fp1001
	22	이정후	jok2791
	23	이호림	nanmin625
	24	임병선	lbs1129
	25	장현숙	jjangtwo2002
	26	전다나	toeltmsm
	27	정우석	soulforsoul
	28	정인식	deaegi
	29	정한구	jwsk1940
	30	추준우	choossam

■ 맞춤법 게임			
으뜸상(1명): 전자사전			
	1	현은희	leahyun
버금상(15명): 초등 만화 맞춤법 3권			
	1	김명권	this88mild
	2	김준임	koobonse
	3	마을순	esmaa
	4	박정숙	pakjsuk
	5	박춘자	kpkhyun
	6	양경화	yang1177
	7	여상아	femaletusk
	8	이미경	leemik
	9	이유승	yslee
	10	이인순	rhythmt
	11	정금재	jkjea011
	12	정승원	tlrksvy6906
	13	최상한	saka1100
	14	최진	choi1506
	15	한천구	cghan01

딸림상(25명): 문화상품권		
1	고의순	koyuisoon19
2	김경수	dichliebe
3	김인숙	kissky77
4	김현호	laughman76
5	노주리	drcom1
6	노주영	iuno77
7	도안숙	dasvip
8	박보름	moonsoony
9	양정은	jungeunlove77
10	오수만	p3155
11	우남주	mupupu
12	유미경	yoomk06
13	이다혜	ioia85
14	이대원	haverd2001
15	이수자	sooja44
16	이윤경	kei331
17	이정호	icarus
18	이진경	bada1239
19	이창균	lck69322
20	이혜연	ichno-
21	임지원	letdieii
22	정금재	jkjgold
23	허정원	jw__angel
24	황은석	anet69
25	황현영	gusdud1107

9.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9-1. ‘아이콘’ 대신 ‘상징(물)’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KBS)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www.malteo.net)’ 누리집을 통해 ‘아이콘’의 다듬은 우리말로 ‘상징(물)’을 선정하였다.

‘아이콘’이란 우상이라는 말을 전문적으로 일컫기도 하며, 어떠한 분야의 최고 또는 대표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이 시대의 섹시 아이콘’, ‘80년대 최고의 인기 아이콘’ 등 아이콘이란 말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아이콘(Icon)은 ‘우상’을 전문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그 의미는 좀 더 보편화되고 여러 분야에 쓰이면서 우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떠한 분야를 대표하는 물건 또는 인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말터 누리집에서는 ‘아이템’을 대신할 우리말을 공모하였다.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단어를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받았다. 그 중에서 ‘표상’, ‘상징(물)’, ‘대표상’, ‘ 으뜸본’, ‘참얼굴’ 모두 다섯 개의 단어를 후보로 투표를 벌였는데, 모두 1,94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상징(물)’이 39%의 지지를 얻어 ‘아이콘’을 대신할 다듬은 우리말로 결정되었다. (※ 참고로, 컴퓨터 화면에 조그마한 그림으로 기능을 표시하는 ‘아이콘’이라는 말은 ‘쭈그림’으로 다듬은 바 있다.)

이처럼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말 다듬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자료실 (http://www.korean.go.kr/08_new/dic/word_refine.jsp)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말터(www.malteo.net)에서는 2주에 하나씩 순화어를 공모하고 있다. 참여하는 분들 중에 순화어로 최종 선정된 말의 최초 제안자에게는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주고 있다.

9-2. ‘노이즈 마케팅’ 대신 ‘구설(수)홍보’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www.malteo.net)’ 누리집을 통해 ‘노이즈 마케팅’의 다듬은 우리말로 ‘구설(수)홍보’를 선정하였다.

영화를 개봉하기 직전, 또는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이란 말을 자주 접해 봤을 것이다. 또한, 기획사들은 신인 가수가 음반을 내기 전 홍보의 한 방법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란, 잡음이나 소음을 만들어 홍보에 활용하는 마케팅의 한 가지로 자신들의 상품을 각종 구설에 휘말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판매를 늘리려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번, 말터 누리집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을 대신할 우리말을 공모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단어를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받았다. 그 중에서 ‘구설(수)홍보’, ‘구설(수)전략’, ‘말내기홍보’, ‘잡음상술’ 모두 네 개의 단어를 후보로 투표를 벌였는데, 모두 1,69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구설(수)홍보’가 47%의 지지를 얻어 ‘노이즈 마케팅’을 대신할 다듬은 우리말로 결정되었다.

9-3. ‘정크푸드’ 대신 ‘부실음식(식품)’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www.malteo.net)’ 누리집을 통해 ‘정크푸드’의 다듬은 우리말로 ‘부실음식(식품)’을 선정하였다.

‘정크푸드’란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즉석식(패스트푸드)과 즉석 식품(인스턴트식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음식은 별다른 조리가 필요 없이 원할 때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 바쁜 직장인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다. 설탕 함유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을 먹을수록 자율신경계를 흥분시켜 통제력을 잃게 한다고 한다. 특히 즉석식과 즉석 식품에는 지방과 인

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 열량은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 등의 성분은 거의 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정크푸드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업체들은 정크푸드가 유해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최근 유기농 채소 및 식물성 지방을 이용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말터 누리집에서는 ‘정크푸드’를 대신할 우리말을 공모하였다.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부실음식(식품)’, ‘허섭음식(식품)’, ‘허접음식(식품)’, ‘부실먹을거리’, ‘허섭먹을거리’, ‘허접먹을거리’ 등 모두 여섯 개의 단어를 후보로 투표를 벌였는데, 모두 1,76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부실음식(식품)’이 47%의 지지를 얻어 ‘정크푸드’를 대신할 다듬은 우리말로 결정되었다.

9-4. ‘커플룩’보다는 ‘ 짹짹차림’이 멋져 보여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www.malteo.net)’ 누리집을 통해 ‘커플룩’의 다듬은 우리말로 ‘ 짹짹차림’을 선정하였다.

‘커플룩’이란 옷이나 장식품, 신발 등 남들이 보기에 짹(커플)으로 비취질 수 있도록 상대방과 똑같이 맞춰 입거나 갖추는 것을 말한다. 연인들이 사귄 때 한 번쯤 꼭 함께 맞춰 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커플룩(couple look)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연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거나 자랑하기 위해 옷을 맞춰 입거나 신발 등을 맞춰 신고 교제를 즐기기도 한다. 최근에는 엄마와 딸, 또는 아빠와 아들 등 가족 간의 커플룩도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똑같은 정장이 아니어도 전체적인 색감을 맞추기도 하고,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는 속옷도 커플룩으로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커플룩은 이처럼 연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많은 인터넷 상점이나 유명 제조 업체에서

도 커플룩을 주요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말터 누리집에서는 ‘커플룩’을 대신할 우리말을 공모하였다.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 짹짹차림’, ‘ 짹지차림’, ‘ 단짹차림’, ‘ 짹
공복(장)’, ‘ 어울복(장)’ 등 다섯 개의 후보 단어에 모두 1,71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 짹짹차림’이 52%의 지지를 얻어 ‘ 커플룩’을 대신할 다듬은 우
리말로 결정되었다.

9-5. ‘유에스비(USB)메모리’에 저장하지 말고 ‘정보막대’에 저장하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www.malteo.net)’ 누리집을 통
해 ‘유에스비(USB)메모리’의 다듬은 우리말로 ‘정보막대’를 선정하였다.
‘유에스비(USB)메모리’란 USB포트에 꽂아 쓰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
한 이동형 저장 장치를 말한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대용량의 파
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USB메모리에 저장한
뒤 USB포트를 통해 프로젝터에 꽂아 다양한 파일 형식의 영상을 집에서
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인 인증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
또한 쉽게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그 저장 용량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모양 또
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요즘은 장식용품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말터 누리집에서는 ‘유에스비(USB)메모리’를 대신할
우리말을 공모하였다.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
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단어를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받았다.
그중에서 ‘정보막대’, ‘막대저장기’, ‘기억쌈지’, ‘갈무리꽃이’, ‘(휴대)저장
틀’ 등 모두 다섯 개의 단어를 후보로 투표를 벌였는데, 모두 1,68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정보막대’가 645명(38)%의 지지를 얻어
‘유에스비(USB)메모리’를 대신할 다듬은 우리말로 결정되었다.

10. 제86차, 제87차, 제88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위원장 권재일)는 제86차 심의위원회를 2009년 9월 23일(수)에, 제87차 심의 위원회를 11월 12일(목)에, 제88차 심의위원회를 12월 3일(목)에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셸 바크먼’ 미국 하원 의원, ‘루이스 펠리피 스콜라리’ 브라질 축구감독 등을 포함한 외국 인명 26개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결정하였다. 이 날 심의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1. 제86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인명 25개)

(2009. 9. 23.)

[인 명]

- 구달, 제인 Jane Goodall 1934~ 영국 동물 행동학자. 침팬지의 생태를 연구. WWF(세계자연보호기금) 야생생물보호상 수상(1984). 저서 ‘인간의 그늘에서(In the Shadow of Man)’(1971), ‘곰베의 침팬지 : 행동양식(The Chimpanzees of Gombe : Patterns of Behavior)’(1986).
- 다나카, 마르쿠스 툴리우 Marcus Tulio Tanaka 일본어명 다나카 마루쿠스 툴리오 田中(タナカ) マルクス 闘莉王(トゥーリオ) 포르투갈어명 마르쿠스 툴리우 류지 무르자니 다나카 Marcus Tulio Lyuji Murzani Tanaka 1981~ 일본 축구 선수. 일본 국가 대표. 브라질 태생의 일본계 3세. 2003년 10월 일본 국적 취득.
- 디보나벤투라, 로렌초 Lorenzo di Bonaventura 1957~ 미국 영화 제작자·프로듀서. 이탈리아 계 미국인.

- 로니스, 윌리 Willy Ronis 1910~2009 프랑스 사진작가. ‘휴머니스트 사진작가’, ‘휴머니즘 사진의 대부’ 등의 명성을 얻음. 파리와 프로방스 지역의 삶을 남긴 사진으로 유명함.
- 롭슨, 보비 Bobby Robson 본명 롭슨, 로버트 윌리엄 Sir Robert William Robson 1933~2009 잉글랜드 축구 감독.
- 류더화 劉德華 Liu Dehua 홍콩 이름 앤디 류 Andy Lau 1961~ 홍콩 영화배우·가수.
- 리버비츠, 애니 Annie Leibovitz 1949~ 미국 사진작가. 패션잡지 베너티 페어(Vanity Fair), 보그(Vogue), 음악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 등의 사진작가로 잘 알려짐.
- 매카트니, (제임스) 폴 (James) Paul McCartney 1942~ 영국 록 가수·작곡가. 비틀스(The Beatles)의 베이스 주자로 잘 알려짐.
- 바찬, 아미타브 Amitabh Bachchan 1942~ 인도 영화배우. 빅 비(Big B), 샤헨샤(Shahenshah) 등으로도 불림.
- 바크먼, 미셸 (마리) Michele (Marie) Bachmann 1956~ 미국 정치가. 하원 의원(2007~).
- 배리 (2세), 매리언 (셰필로프) Marion (Shepilov) Barry, Jr. 1936 ~ 미국 정치가. 워싱턴 D.C. 시장(1979~1991, 1995~1999).
- 벤모셰, 로버트 Robert H. Benmosche 1944~ 미국 보험사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 최고 경영자(CEO).

- 벨, 앤디 Andy Bell 본명 앤드루 벨 Andrew P. Bell 1970~ 영국 가수 · 작곡가 · 디스크자키.
- 브리지스, 캠벨 Campbell R. Bridges 1938~2009 스코틀랜드 지질학자 · 보석 전문가. 케냐에 거주하며 희귀 보석의 원석을 채취함. 1971년 짐바브웨에서, 1967년 탄자니아에서, 1970년 케냐에서 ‘차보라이트(tavorite)’로 잘 알려진 가넷(garnet)의 변종을 발견함.
- 사순, 비달 Vidal Sassoon 1928~ 영국 미용사 · 실업가.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인 대영제국 커맨더 훈장(CBE)을 받음(2009. 6. 13.)
- 새록, 크리스 Chris Sharrock 1964~ 영국 드럼 주자. 영국 록 밴드 오아시스(Oasis)를 비롯하여 많은 밴드에서 활동.
- 스콜라리, 루이스 펠리피 Luiz Felipe Scolari 1948~ 브라질 축구 감독.
- 스타, 링고 Ringo Starr 본명 리처드 스타키 Richard Starkey 1940~ 영국 록 밴드 가수 · 작곡가. 비틀스(The Beatles)의 드럼 주자로 활약(1962~1970).
- 시모어, 배레브 Seymour Barab 1921~ 미국 첼리스트 · 작곡가.
- 아키노 3세, 베니그노 (시메온) Benigno S(imeon) Aquino III 애칭 노이노이 Noynoy 1960~ 필리핀 정치가. 상원 의원(2007. 6. ~). 하원

의원(1998~2007). 고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전 대통령의 장남.

- 와이즈물러, 조니 Johnny Weissmuller 본명 피터 존 와이즈물러/와이즈물러 Peter John Weissmuller 1904~1984 미국 수영 선수·영화배우. 영화 ‘타잔(Tarzan)’에 주연으로 출연. 1924년 파리 올림픽과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의 수영 자유형(100m, 400m)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
- 조이스, 브렌다 Brenda Joyce 본명 베티 리보 Betty G. Leabo 1917~2009 미국 영화배우. 영화 ‘타잔(Tarzan)’에서 타잔의 연인 제인(Jane) 역할로 출연. 그녀의 상대역 타잔은 조니 와이즈물러(Johnny Weissmuller, 1904~1984)와 렉스 바커(Lex Barker, 1919~1973).
- 추이스안 崔世安 Chui Sai On 포르투갈 어명 페르난두 추이 Fernando Chui 1957~ 마카오 특별 행정구 행정 장관(2009. 7. ~). 마카오 사회문화관(각료)(1999~2009). 허허우화(何厚鐸) 행정 장관 후임.
- 칙센트미하이, 미하이 Mihaly Csikszentmihalyi 헝가리 어명 Mihály Csíkszentmihály 1934~ 헝가리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미국 클레어몬트 대 피터드러커 경영대학원 교수 겸 삶의 질 연구소 소장(2009년 8월 현재). 시카고 대에서 심리학 교수로 40년을 재직. 긍정 심리학의 대가이며 ‘몰입 이론’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음. 저서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경영’ 등.

- 튜더, 타샤 Tasha Tudor 1915~2008 미국 동화 삽화가 · 원예가. '호박 달빛(Pumpkin Moonshine, 1938)', '엄마 거위(Mother Goose, 1944)' 등 많은 작품을 남김. 콜더컷(Caldecott) 상을 두 차례 수상. 18~19세기의 미국 전원 풍경을 재현한 자급자족의 삶을 실천.
- 포셋, 파라 (레니) Farrah (Leni) Fawcett 1947~2009 미국 배우.

10-2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 소위 심의 확정안

(2009. 8. 10.~9. 21.)

[인 명]

- 갤러거, 노엘 (토머스 데이비드) Noel (Thomas David) Gallagher 1967~ 영국 록 밴드 가수 · 작곡가. 오아시스(Oasis)의 일원으로 잘 알려짐. 리엄 갤러거(Liam Gallagher)의 형.
- 갤러거, 리엄 Liam Gallagher 본명 윌리엄 존 폴 갤러거 William John Paul Gallagher 1972~ 영국 록 밴드 가수 · 작곡가. 오아시스(Oasis)의 리드 싱어로 잘 알려짐.
- 골드스타인, 애덤 (마이클) Adam (Michael) Goldstein 1973~2009 미국 디스크자키. '디제이 에이엠(DJ AM)'이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짐.
- 나일라티카우, (라투) 에펠리 (Ratu) Epeli Nailatikau 1941~ 피지 정치가. 잠정 대통령(2009. 7.~). 하원 의장(2001~2006), 지방 개발 · 선주민 문제 · 다민족 문제 장관(2008. 9.~2009. 4.), 부통령(2009. 4.~7.). 건강 악화로 퇴임한 88세의 조세파 일로일로(Josefa Iloilo) 대

통령의 후임.

- 노백, 로버트 (데이비드 샌더스 “밥”) Robert (David Sanders “Bob”) Novak 1931~2009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보수파 논객으로 시엔옌 (CNN) 텔레비전 정치 프로그램 사회자(1980~2005). 6·25 전쟁 때 육군 대위로 참전(1952~1953).
- 노아, 야니크 Yannick Noah 1960~ 프랑스 가수. 전 테니스 선수.
- 닐, 샘 Sam Neill 본명 나이절 존 더멧 닐 Nigel John Dermot Neill 1947~ 북아일랜드 출신의 뉴질랜드 영화배우.
- 데이비드, 크레이그 (애슐리) Craig (Ashley) David 1981~ 영국 가수·작사가.
- 도드, 크리스토퍼 (존) “크리스” Christopher (John) “Chris” Dodd 1944~ 미국 정치가·변호사. 코네티컷 주 상원 의원(1981~).
- 디아스, 미겔 Miguel H. Diaz 1964~ 미국 신학자. 바티칸 주재 대사 지명자(2009. 5. 27.). 쿠바 아바나(Havana) 출신. 미네소타 주 칼리지 빌(Collegeville)의 성 베네딕토와 성 요한 신학교 교수. 신학 박사(노터데임(Notre Dame) 대).
- 라크루아, 크리스티앙 (마리 마르크) Christian (Marie Marc) Lacroix 1951~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프랑스 동남부 부슈뒤론(Bouches-du-Rhône)주 아를(Arles) 태생.

- 랑스추 梁實秋 1903~1987 중국 작가·번역가.
- 러셀, 조지 (앨런) George (Allen) Russel 1923~2009 미국 재즈 작곡가·연주가.
- 레논, 존 John Lennon 1940~1980 영국 록 기타 주자·가수·작곡가. 비틀스(The Beatles) 멤버로 활약(1962~1970). 1980년 뉴욕 자택에서 사살됨.
- 루네스타, 예이르 Geir Lundestad 1945~ 노르웨이 작가·교육자. 노벨상위원회 사무총장.
- 루비니, 누리엘 Nouriel Roubini 1959~ 터키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뉴욕 대 교수. 터키, 이란, 미국 국적 소유자.
- 류자오취안 劉兆玄 Liu Zhaoxuan 1943~ 대만 정치가. 행정원장(총리)(2008~2009. 9.).
- 리카이푸 李開復 Li Kai-Fu 1961~ 중국 기업인·전산학자. 구글(Google) 차이나 사장(2005~2009).
- 막시마 왕세자비 Princess Maxima 본명 막시마 소레기에타 세루티 Máxima Zorreguieta Cerruti 1971~ 네덜란드 왕세자비. 아르헨티나 출신. 빌럼 알렉산더르(Willem Alexander) 왕세자와 2002년에 결혼.
- 먼로, 앨리스 (앤) Alice (Ann) Munro 친정 성 레이들로 Laidlaw 1931~ 캐나다 단편 작가. 2009년도 국제 부커(Booker)상을 비롯하여

많은 국내외 문학상 수상. 단편 작가로서 세계 최고봉의 한 사람.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명됨. 대표작 ‘Dance of the Happy Shades’(1968), ‘Lives of Girls and Women’(1971).

- 멀럴리, 앨런 (로저) Alan (Roger) Mulally 1945~ 미국 기술자·기업인. 포드(Ford) 자동차의 최고 경영자(CEO).
- 밀크, 하비 (버나드) Harvey (Bernard) Milk 1930~1978 미국 정치가. 동성애자로서 최초로 공직(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선출됨. 동성애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하다가 살해됨. 2008년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 ‘밀크(Milk)’가 제작·상영됨.
- 바커, 렉스 Lex Barker 1919~1973 미국 영화배우.
- 베네데티 (파루히아), 마리오 (오를란도 암레트 아르디 브레노) Mario (Orlando Hamlet Hardy Brenno) Benedetti (Farugia) 1920~2009 우루과이 작가·시인. 저명한 중남미의 현대 작가. 대표작 ‘몬테비데오의 사람들’, ‘휴전’ 등. 좌파계 작가로 군정 시대에는 해외 망명.
- 봉고온딤바, 알리벤 Ali-Ben Bongo Ondimba 본명 알랭 베르나르 봉고 Alain Bernard Bongo 1959~ 가봉 정치가. 대통령(2009. 9.~). 외무 장관(1989~1991), 국방 장관(1999~2009). 오마르 봉고온딤바 (Omar Bongo Ondimba) 대통령의 아들.
- 분, 대니 Dany Boon 본명 다니엘 아미두 Daniel Hamidou 1966~ 프랑스 코미디언·영화감독·배우.

- 브라운, 댄 Dan Brown 1964~ 미국 추리 작가·소설가. ‘다빈치 코드 (The Da Vinci Code, 2003)’로 잘 알려짐.
- 사냐, 말랑 바카이 Malam Bacai Sanhá 1947~ 기니비사우 정치가. 대통령(2009. 7.~). 기니 카보베르데 독립 아프리카당(PAIGC) 소속. 대통령(1999~2000).
- 사이먼, (마빈) 닐 (Marvin) Neil Simon 1927~ 미국 극작가. 중산 계급을 다룬 희극으로 성공. ‘맨발의 산책(Barefoot in the Park, 1963)’, ‘우스꽝스러운 두 사람(The Odd Couple, 1965)’.
- 소여, (라일라) 다이앤 (Lila) Diane Sawyer 1945~ 미국 여성 방송인. 에이비시(ABC)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ABC 월드 뉴스’의 사회자 (2010. 1.~).
- 슈라이버, 로버트 사전트 (2세) Robert Sargent Shriver, Jr. 1915~ 미국 정치가. 고(故)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매제. 프랑스 주재 대사(1968~1970), 경제기획국 국장(1965~1968). 1972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
- 슈라이버, 유니스 케네디 Eunice Kennedy Shriver 1921~2009 미국 정신 지체 장애인 스포츠 대회 ‘스페셜 올림픽(SO)’ 창설자. 1963년 암살된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여동생이며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M. Kennedy) 상원 의원의 누이. 딸 마리아 슈라이버 (Maria Shriver)는 캘리포니아 주 아널드 슈워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 지사의 부인이며, 남편 사전트 슈라이버(Sargent Shriver)는 전 프랑스 대사로 1972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

- 슈타트펠트, 마르틴 Martin Stadtfeld 1980~ 독일 피아니스트.
- 아처, 겐 Gem Archer 본명 콜린 머리 아처 Colin Murray Archer 1966~ 영국 록 밴드 가수·작곡가. 오아시스(Oasis)의 기타 주자로 잘 알려짐.
- 악쇼노프, 바실리 (파블로비치) Vasily (Pavlovich) Aksyonov 러시아
어명 : Василий Павлович Аксёнов 1932~2009 러시아 작가. 러시아 중부 카잔(Kazan') 태생. 스탈린 비판 후,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묘사한 장편 '별의 티켓'(1961) 등을 발표. 반체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Aleksandr I. Solzhenitsyn)을 지지한 것 등으로 소련 당국에서 작품 발표를 금지하여 1980년 미국으로 망명. 1990년 소련 시민권을 회복한 뒤 미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 알하킴, (사이드) 압둘 아지즈 (Sayyed) Abdul Aziz al-Hakim 아랍
어명 : سيد عبد العزيز الحكيم 1950~2009 이라크 정치가. 이슬람교 시아파 정당 이라크·이슬람 최고 평의회(SIIC) 지도자(2003~2009).
- 압델 아지즈, 무함마드 울드 Mohamed Ould Abdel Aziz 이명(異名) 무함마드 압델 아지즈 Muhammad Abdel-Aziz, 울드 압델라지즈 Ould Abdelaziz 1956~ 모리타니 군인 정치가. 대통령(2009. 7. ~). 국가평의회 의장(2008. 8. ~2009. 4.).
- 엘리슨, 래리 Larry Ellison 본명 로런스 조지프 엘리슨 Lawrence Joseph Ellison 1944~ 미국 실업가. 미국 오러클(Oracle) 사의 창업자이며 최고 경영자(CEO).

- 우둔이 吳敦義 Wu Dunyi 1948~ 대만 행정원장(총리)(2009. 9.~). 중부 난터우(南投) 현 출신의 본성인(本省人). 전 입법위원(국회의원), 난터우 현장(1981~1989), 가오슝(高雄) 시장(1990~1998). 류자오췌안(劉兆玄) 행정원장의 후임.
- 월시, 폴 Paul Walsh 1955~ 영국 실업가. 주류 업체 다이어지오(Diageo)의 회장.
- 음바오바메, 앙드레 André Mba Obame 1957~ 가봉 정치가. 내무 치안·이민 장관(2006~2009).
- 자말, 마리암 유수프 Maryam Yusuf Jamal 아랍 어명 : مريم يوسف جمال 본명 제네베치 톨라 Zenebech Tola 1984~ 에티오피아 출신의 바레인 육상선수. 2007년,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금메달 수상.
- 자일러, 토니 Toni Sailer 본명 안톤 앵겔베르트 자일러 Anton Engelbert Sailer 1935~2009 오스트리아 알펜스키 선수·영화배우.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Cortina d'Ampezzo) 동계 올림픽 알펜스키 3관왕(회전·대회전·활강). 1959년 은퇴 후 배우와 가수로도 활약. 1985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오더(Olympic Order) 훈장(공로상)을 받음.
- 쥐린 卓琳 Zhuo Lin 1916~2009 중국 전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셋째 부인. 1937년 중국 공산당의 거점 옌안(延安)에서 혁명에 참가. 문화 대혁명(1969~1973) 때는 남편 덩샤오핑과 함께 연금 생활.

- 지키나, 류드밀라 (게오르기예브나) Lyudmila (Georgievna) Zykina
러시아 어명 : Людмила Георгиевна Зыкина 1929~2009 러시아
민요 가수, 국민 가수. 1947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 43년간 ‘불가 강
은 흐른다’를 비롯해 250여 히트곡을 남김. 북한 평양에서도 여섯 차
레 공연을 했음.
- 카멜, 유세프 사드 Youssef Saad Kamel 아랍 어명 : يوسف سعد كامل 본
명 그레고리 콘첼라 Gregory Konchellah 1983~ 케냐 출신의 바레인
육상 선수.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500m 금메달 수상.
- 커티스, 제럴드 Gerald L. Curtis 1940~ 미국 정치학자. 컬럼비아 대
정치학 교수(2009년 7월 현재).
- 케너드, 윌리엄 (얼) William (Earl) Kennard 1957~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1997~2001).
- 케네디 2세, 조지프 패트릭 Joseph Patrick Kennedy II 1952~ 미국
정치가·실업가. 6선 연방 하원 의원(1987~1999). 로버트 케네디
(Robert F. Kennedy) 전 상원 의원의 장남.
- 크레이머, 잭 Jack Kramer 본명 존 앨버트 크레이머 John Albert
Kramer 1921~2009 미국 테니스 선수. 프로테니스선수협회 회장
(1972~).
- 테이텀, 채닝 (매슈) Channing (Matthew) Tatum 1980~ 미국 영화
배우·모델.

- 텐위안 田原 Tian Yuan 1985~ 중국 작가·가수·여배우·사진작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태생. 베이징(北京) 어언(語言)문화대 졸업. 17세 때 가수와 작가에 동시 데뷔. 영화 '호접(胡蝶)'에 첫 출연하여, 홍콩 금상상(金像賞) 최우수 신인상 수상.
- 트베이트, 올라브 (퓍세) Olav (Fykse) Tveit 1960~ 노르웨이 루터교 목사. 세계교회협의회(WCC) 사무총장(2010. 1.~). 임기 5년.
- 팔레오마바에가, 에니 (파우아 흥킨) Eni (Fa'aua'a Hunkin) Faleomavaega, Jr. 1943~ 미국 정치가. 하원 의원(1989~).
- 피셔, 리처드 Richard W. Fisher 1949~ 미국 달러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총재(2005~).
- 호르테르, 베르텔 Bertel Haarder 1944~ 덴마크 정치가. 교육·북유럽 협력 장관(2007~). 교육·성직 장관(2005~2007), 유럽의회 의원(1994~2001), 덴마크 의회 의원(1975~1998, 2005~).
- 후세 다쓰지 布施辰治 1880~1953 일본 변호사·사회 운동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음(2004).

10-3. 제87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인명 22개)

(2009. 11. 12.)

[인명]

- 가오, 찰스 Charles K. Kao 중국어명 가오쿤 高錕 Gao Kun 1933~ 중국 출신의 미국 광학자. 전 홍콩 중원(中文)대학장. 영국·미국 국적 소지. 상하이(上海) 태생. 광섬유에 의한 정보 통신에의 공헌과 전하결합소자(CCD) 센서의 발명 등으로 정보 기술(IT) 사회의 기초를 구축한 것 등이 평가되어 2009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
- 구텐베르크, 카를테오도어 추 Karl-Theodor zu Guttenberg 1971~ 독일 정치가. 국방 장관(2009. 10.~). 경제 장관(2009. 2.~2009. 10.).
- 겔바트, 래리 (사이먼) Larry (Simon) Gelbart 1928~2009 미국 코미디 작가·드라마 작가.
- 그뢰네펠트, 아나레나 Anna-Lena Grönefeld 1985~ 독일 테니스 선수.
- 니벨, 디르크 Dirk Niebel 1963~ 독일 정치가. 국제개발장관(2009. 10.~). 자유민주당(FDP) 사무총장(2005~2009). 재정 회계 전문가.
- 람자워, 페터 Peter Ramsauer 1954~ 독일 정치가.
-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 자비네 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1951~ 독일 정치가. 법무 장관(1992~1996, 2009.

10.~).

- 바머, 지빌레 Sybille Bammer 1980~ 오스트리아 테니스 선수.
- 브뤼덜레, 라이너 Rainer Brüderle 1945~ 독일 정치가. 경제 장관 (1009. 10.~).
- 새파이어, 윌리엄 William Safire 1929~2009 미국 저술가·시사 평론가·언론인·사서 편찬자. 뉴욕 타임스의 정치 칼럼을 집필 (1973~2005). 닉슨(Nixon)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 1978년 풀리처 상 수상.
- 쇼너시, 메이건 Meghann Shaughnessy 1979~ 미국 테니스 선수.
- 턱슨, 피터 코드워 아피아 Peter Kodwo Appiah Turkson 1948~ 가나 추기경.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2009~).
- 페트코비츠, 안드레아 Andrea Petkovic 1987~ 독일 테니스 선수. 유고슬라비아 투즐라(Tuzla) 출생. 부모님은 세르비아 인.
- 호스니, 파루크 (압델아지즈) Farouk (Abdel-Aziz) Hosni 1938~ 이집트 화가. 문화 장관(1987~).
- 베탕쿠르 (콰르타스), 벨리사리오 Betancur (Cuartas), Belisario 1923~ 콜롬비아 정치가. 대통령(1982~1986).
- 마자오쉬 馬朝旭 1963~ 중국 외교부 보도국장.(2009.2.~). 동 정책

기획국장(2004.~06.), 경제학 박사. 전임 국장 류젠차오(劉建超)의 후임. ☞ 83차 회의에서 '마차오쉬'로 결정하였던 것을 정정함.

- 데라로차, 알리시아, (이 데라카예) Alicia de Larrocha (y de la Calle) 1923~2009 스페인 피아니스트. 그라나도스(Enrique Granados)와 알베니스(Isac Albéniz) 등 스페인 작곡가의 연주로 알려져 그래미상(1975, 1992)과 아스투리아스(Asturias) 왕세자상(1994)을 수상.
- 돌란, 그자비에 Xavier Dolan 1989~ 캐나다 영화배우·영화감독. '나는 엄마를 죽였다(I Killed My Mother)'로 제28회 밴쿠버 국제 영화제에서 칸웨스트 상 수상.
- 마르티노, 알 Al Martino 본명 알프레드 치니 Alfred Cini 1927~2009 미국 가수·배우. 이탈리아계 미국인. 1972년 말론 브랜도(Marlon Brando) 주연의 '대부'에 출연, 주제곡을 불렀음.
- 바트볼드, 수흐바타린 Sükhbaataryn Batbold 몽골 어명 : Сүхбаатарын Батболд 1963~ 몽골 총리(2009. 10.~). 경제학 박사. 관료에서 광산회사 사장을 거쳐 국회 의원, 외무 장관(2008~2009).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산자긴 바야르(Sanjaagiin Bayar) 전 총리의 후임.
- 크리스톨, 어빙 Irving Kristol 1920~2009 미국 평론가·언론인. 신보주의(neocon)의 증진. 딕 체니(Dick Cheney) 전 부통령과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 전 국방 장관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 2002년 미국 민간인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상.

- 트리올라 (마빈), 미셸 Michelle Triola (Marvin) 1933~2009 미국 배우.

독일 메르켈 2차 내각(2009. 10. 28. 발족)

총리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55)
부총리 겸 외무	기도 베스터벨레 Guido Westerwelle (47)
총리 비서실장	로날트 포팔라 Ronald Pofalla (50)
재무	볼프강 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67)
경제	라이너 브뤼덜레 Rainer Brüderle (64)
내무	토마스 데메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55)
국방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Karl-Theodor zu Guttenberg (37)
노동	프란츠 요제프 융 Franz Josef Jung (60)
보건	필리프 뢰슬러 Philipp Rösler (36)
교통	페터 람자워 Peter Ramsauer (55)
교육	아네테 샤반 Annette Schavan (54)
법무	자비네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 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58)
국제 개발	디르크 니벨 Dirk Niebel (46)
농림 소비자	일제 아이그너 Ilse Aigner (44)
환경	노르베르트 뢰트겐 Norbert Röttgen (44)
가정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51)

10-4.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 심의 확정안

(2009. 10. 5.~11. 9.)

[인 명]

- 가와바타 다쓰오 川端達夫 1945~ 일본 정치가. 문부과학상(2009. 9. ~). 당 간사장, 부대표, 중의원 8선. 교토(京都)대 출신.
- 가토 가즈히코 加藤和彦 1947~2009 일본 작곡가·가수·기타 연주자.

- 겔판트, 이즈라일 (모이세예비치) Israel' (Moiseevich) Gel'fand 러시아 어명 : Израиль Моисеевич Гельфанд 우크라이나 어명 : Ізраїль Мойсейович Гельфанд 1913~2009 러시아 수학자. 우크라이나 태생. 모스크바대 수학박사. 함수해석학(函數解釋學) 분야에서 선구적 성과를 올려, 양자역학이나 소립자론(素粒子論)에도 공헌. 공저 '초함수(超函數)' 등.
- 그라이더, 캐럴 Carol W. Greider 1961~ 미국 분자 생물학자. 존스홉킨스대 의대 교수. 염색체의 끝 부분에 있는 말단소체(telomere)와 그것을 만드는 효소(telomerase)의 기능을 발견, 세포의 노화를 해명함으로써, 2009년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공동 수상.
- 그루스, 페터 Peter Gruss 1949~ 독일 생명 공학자. 막스플랑크 연구재단(MPG) 총재(2002~).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 생물학 박사. 막스플랑크 생물리화학연구소장을 거쳐 현직.
- 그린, 안젤름 Anselm Grün 1945~ 독일 베네딕트회 신부. 독일 옹커스하우젠(Junkershausen) 태생. 세계적인 영성가이며 영성 작가. 저서 약 300권으로 14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함.
- 기타자와 도시미 北澤俊美 1938~ 일본 정치가. 방위상(2009. 9. ~),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 당 참의원 간사장. 참의원 3선. 와세다(早稻田)대 출신.
- 나가쓰마 아키라 長妻昭 1960~ 일본 정치가. 후생노동상(2009. 9. ~). 경제지 기자. NEC(日本電氣) 사원. 중의원 4선. 게이오(慶應)대 출신.

- 나오시마 마사유키 直嶋正行 1945~ 일본 정치가. 경제산업상(2009. 9.~). 자동차총련 부회장, 당 정조회장. 참의원 3선. 고베(神戸)대 출신.
- 나카이 히로시 中井洽 1942~ 일본 정치가. 국가공안위원장(2009. 9.~). 당 부대표, 자유당 부당수, 법무상. 중의원 11선. 게이오(慶應)대 출신.
- 뉴섬, 개빈 (크리스토퍼) Gavin (Christopher) Newsom 1967~ 미국 정치가. 샌프란시스코 시장(2004~).
- 두셰비나, 베라 (예브게니예브나) Vera (Yevgenyevna) Dushevina 러시아 어명 : Вера (Евгеньевна) Душевина 1986~ 러시아 테니스 선수.
- 라드반스카, 우르술라 Urszula Radwańska 1990~ 폴란드 테니스 선수.
- 라마크리슈난, 벤카트라만 Venkatraman Ramakrishnan 1952~ 영국 생물학자. 케임브리지 대 MRC 분자 생물학 연구소 상급 연구원. 유타대 교수 등 역임.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출신. 미국 국적 소지. 리보솜(ribosome)의 입체 구조와 기능 연구로 2009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
- 라카예 (데 에레라), 루이스 알베르토 Luis Alberto Lacalle (de Herrera) 1941~ 우루과이 정치가. 대통령(1990~1995). 2009년 우루과이 대선 후보.

- 레예스, 만프레드, 비야 Manfred Reyes Villa 1954~ 볼리비아 정치가.
- 뢰슬러, 필리프 Philipp Rösler 1973~ 독일 정치가·의사. 베트남 출생으로 독일에 입양되었음. 보건 장관(2009. 10.~). 니더작센 주 경제장관(2009. 2.~2009. 10.).
- 뢰트겐, 노르베르트 Norbert Röttgen 1965~ 독일 정치가·변호사. 환경장관(2009. 10.~).
- 리바리코바, 마그달레나 Magdaléna Rybáriková 1988~ 슬로바키아 테니스 선수.
- 립스키, 존 John Lipsky 1947~ 미국 경제학자. 국제통화기금(IMF) 필두 부전무이사(2006. 9.~).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제이피(JP) 모건 투자는행 부회장을 거쳐 현직.
- 마카로바, 예카테리나 (발레리예브나) Ekaterina (Valeryevna) Makarova 러시아 어명 : Екатерина (Валерьевна) Макарова 1988~ 러시아 테니스 선수.
- 매클널, 미치 Mitch McConnell 본명 애디슨 미첼 매클널 (2세) Addison Mitchell McConnell, Jr. 1942~ 미국 변호사·정치가. 상원 의원(1985~).
- 맨틀, 힐러리 (메리) Hilary (Mary) Mantel 1952~ 영국 소설가·단편작가·논평가. 16세기 영국 튜더 왕조에서 헨리 8세의 측근으로 권세를 휘두른 토머스 크롬웰(Thomas Cromwell)을 주인공으로 한 역

사소설 '울프 홀(Wolf Hall)'로 부커(Booker)상을 수상(2009. 10.).

- 메디나 (가리게스), 아나벨 Anabel Medina (Garrigues) 본명 아나 이사벨 메디나 가리게스 Ana Isabel Medina Garrigues 1982~ 스페인 테니스 선수.
- 메르츠, 한스루돌프 Hans-Rudolf Merz 1942~ 스위스 대통령(2009. 1.~). 1997년 급진 민주당 상원 의원, 2004년 재무장관, 2008년 부통령. 대통령 임기는 1년으로, 메르츠 대통령은 재무 겸임.
- 메이도프, 버나드 (로런스) Bernard (Lawrence) Madoff 1938~ 미국 금융인.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
- 모리타 아유미 森田あゆみ 1990~ 일본 테니스 선수.
- 몬, 라인하르트 Reinhard Mohn 1921~2009 독일 기업가. 출판사였던 베텔스만(Bertelsmann)을 세계적 복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시킴. 그 밖에 출판사 랜덤하우스, 독일 RTL 텔레비전 등을 보유.
- 무히카 (코르다노), 호세 (알베르토) José (Alberto) Mujica (Cordano) 1935~ 우루과이 정치가. 상원 의원. 농목·수산장관 (2005~2008). 2009년 우루과이 대선 후보. 게릴라 활동가 (1960~1970).
- 뮐러, 헤르타 Herta Müller 1953~ 독일 소설가·시인. 루마니아 서부 티미슈(Timiș) 주 니츠키도르프(Nițchidorf) 태생. 200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스웨덴 아카데미는 수상 이유로 '응축된 시어와 진솔한 산

문으로, 소외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밝혔다. 주요 작품은 '저지대(Niederungen)'(1982), '맨발의 2월(Barfüßiger Februar)'(1987), '그때 이미 사냥꾼이 된 여우(Der Fuchs war damals schon der Jäger)'(1992), '숨쉬는 그네(Atemschaukel)'(2009) 등.

- 밀리밴드, 에드 Ed Miliband 본명 에드워드 새뮤얼 밀리밴드 Edward Samuel Miliband 1969~ 영국 정치가. 에너지·기후 변동 장관(2008. 10.~). 재무부 경제 고문 평의회의장, 미국 하버드대 객원 교수 등을 거쳐 2005년 노동당 의원. 외무 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W. Miliband)의 동생.
- 바바잔, 알리 Ali Babacan 1967~ 터키 정치가. 재무장관(2009. 10.~). 외무 장관(2007~2009).
- 배틀, 캐슬린 Kathleen Battle 1948~ 미국 소프라노 가수. 화려하고도 서정적인 리릭 콜로라투라(lyric coloratura) 소프라노로 알려짐.
- 보르다베리 (에란), 페드로 Pedro Bordaberry (Herrán) 1960~ 우루과이 정치가. 2009년 우루과이 대선 후보.
- 보일, 윌러드 (스털링) Willard S(terling) Boyle 1924~ 캐나다 물리학자. 전 미국 벨 연구소 통신 과학 부문 책임자. 캐나다·미국 국적 소지. 전하결합소자(CCD) 센서를 발명하는 등 정보 기술(IT) 사회의 기초를 구축한 것 등이 평가되어 2009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
- 브리안티, 알베르타 Alberta Brianti 1980~ 이탈리아 테니스 선수.

- 블랙번, 엘리자베스 (헬렌) Elizabeth (Helen) Blackburn 1948~ 미국 분자 생물학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교수. 오스트레일리아 태생. 염색체의 끝 부분에 있는 말단소체(telomere)와 그것을 만드는 효소(telomerase)의 기능을 발견, 세포의 노화를 해명함으로써, 2009년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공동 수상.
- 비달, (유진 루서) 고어 (Eugene Luther) Gore Vidal 1925~ 미국 소설가·극작가·비평가. 수필, 희곡, 시나리오도 집필.
- 세바스토바, 아나스타시야 Anastasija Sevastova 1990~ 라트비아 테니스 선수.
- 센고쿠 요시토 仙谷由人 1946~ 일본 정치가. 행정쇄신상(2009. 9.~). 변호사. 당 정조회장. 중의원 6선. 도쿄(東京)대 중퇴.
- 소사, 메르세데스 Mercedes Sosa 1935~2009 아르헨티나 민중가수. 통칭 라 네그라 La Negra. 중남미에서 1960년대 등장한 음악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ón)의 선구자로 대표적인 가수.
- 쇼스타크, 잭 (윌리엄) Jack W(illiam) Szostak 1952~ 미국 생물학자. 하버드대 의대 교수.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람. 염색체의 끝 부분에 있는 말단소체(telomere)와 그것을 만드는 효소(telomerase)의 기능을 발견, 세포의 노화를 해명함으로써, 2009년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공동 수상.
- 슈탄첼, 볼커 Volker Stanzel 1948~ 독일 외교관. 주 일본 대사(2009. 10.~). 중국 대사(2004~2007). 전 외무부 정치국장.

- 슬버그, 버드 Budd Schulberg 1914~2009 미국 작가·각본가. 말론 브랜도(Marlon Brando)의 출세작인 엘리아 카잔(Elia Kazan) 감독의 '선창(On the Waterfront, 1954)'으로 아카데미 오리지널 각본상을 수상.
- 스레보트니크, 카타리나 Katarina Srebotnik 1981~ 슬로베니아 테니스 선수.
- 스미스, 조지 (엘우드) George E(lwood) Smith 1930~ 미국 물리학자. 전 벨 연구소 초대 규모 집적회로 장치 부문 선임 연구원. 전하결합소자(CCD) 센서를 발명하는 등 정보 기술(IT) 사회의 기초를 구축한 것 등이 평가되어 2009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
- 스코턴, 데이비드 David J. Skorton 1949~ 미국 의학자·대학 행정관. 아이오와(Iowa)대 총장(2002~2006), 코넬(Cornell)대 총장(2006~).
- 스키타보네, 프란체스카 Francesca Schiavone 1980~ 이탈리아 테니스 선수.
- 스타이츠, 토머스 (아서) Thomas A(rthur) Steitz 1940~ 미국 분자생물학자. 예일대 교수. 하워드 휴스 의학 연구소 연구원 겸임. 리보솜(ribosome)의 입체 구조와 기능 연구로 2009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
- 아사다 마오 浅田真央 1990~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 아이그너, 일제 Ilse Aigner 1964~ 독일 정치가. 농림 소비자 장관

(2009. 10.~).

- 아카마쓰 히로타카 赤松廣隆 1948~ 일본 정치가. 농림수산상(2009. 9.~). 사회당 서기장. 중의원 7선. 와세다(早稻田)대 출신.
- 안도 미키 安藤美姫 1987~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 알메이다, 후안, (보스케) Juan Almeida (Bosque) 1927~2009 쿠바 정치가. 쿠바 혁명의 흑인 지도자. 국가평의회 부의장(1976~2009), 혁명군 사령관. 작곡가. 300곡 이상을 작곡.
- 에라니, 사라 Sara Errani 1987~ 이탈리아 테니스 선수.
- 엔다라, 기예르모 (다비드), (갈리마니) Guillermo (David) Endara (Galimany/Galimani) 1936~2009 파나마 정치가. 대통령(1986~1994).
- 오스트롬, 엘리너 Elinor Ostrom 1933~ 미국 정치경제학자. 인디애나대 정치학 교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목초지와 삼림, 호수 등 공유 자원의 보호·운영에 관한 연구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
- 오자와 사키히토 小澤鋭仁 1954~ 일본 정치가. 환경상(2009. 9.~). 중의원 환경위원장. 은행원. 중의원 6선. 도쿄(東京)대 출신.
- 외크비스트, 군나르 Gunnar Öqvist 1941~ 스웨덴 식물 생리학자.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 사무총장(2003~). 노벨 재단 부이사장

(2005~) 편집.

- 요나트, 아다 Ada E. Yonath 1939~ 이스라엘 결정학자. 이스라엘 바 이츠만 과학 연구소 교수. 독일 막스플랑크(Max Planck) 연구소 연구부문장 등 역임. 리보솜(ribosome)의 입체 구조와 기능 연구로 2009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
- 위안구이런 袁貴仁 Yuan Guiren 1950~ 중국 교육부 부부장(차관). 저우지(周濟) 교육부장 후임.
- 윌리엄슨, 올리버 (이턴) Oliver E(aton) Williamson 1932~ 미국 경제학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카네기멜론대 경제학 박사. 기업 및 경제 지배 구조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공로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
- 지바 게이코 千葉景子 1948~ 일본 정치가. 법무상(2009. 9.~). 변호사. 당 부대표. 참의원 4선. 주오(中央)대 출신.
- 카디르, 라비야 Rebiya Kadeer 중국어명 : 熱比婭·卡德爾, 위구르 어명 : رابیہ قادیر, Rabiya Qadir 1947~ 세계 위구르회의(WUC) 대표. 인권운동가. 전국 정치 협상 회의 위원(1992). 2006년 노벨 평화상 후보. 미국 거주.
- 크레이버스, 질 Jill Craybas 1974~ 미국 테니스 선수.
- 크로퍼드, 케네스 Kenneth Crawford 1944~ 미국 기상학자.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 단장(2009. 8.~). 미국 오클라호마(Oklahoma)대

기상학 박사. 동 대학 기상학 교수(1989).

- 크르스테아, 소라나 (미하엘라) Sorana (Mihaela) Cîrstea 1990~ 루마니아 테니스 선수.
- 크반트, 베른하르트 Bernhard Quandt 한국명 李韓佑(1986~2001), 李參(현재) 1954~ 독일 태생의 종교가·방송인. 전 어학 강사, 기업의 국제 마케팅 전략 고문. 한국관광공사 사장(2009. 7. ~). 1982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 1986년 한국 국적 취득.
- 클레이바노바, 알리사 (미하일로브나) Alisa (Mikhaelovna) Kleybanova 러시아 어명 : Алиса (Михайловна) Клей банова 1989~ 러시아 테니스 선수.
- 키릴렌코, 마리야 (유리예브나) Maria (Yuryevna) Kirilenko 러시아 어명 : Мария (Юрьевна) Кириленко 1987~ 러시아 테니스 선수.
- 킹, 버니스 Bernice A. King 1963~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SCLC) 회장(2009~).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목사의 딸.
- 파블류첸코바, 아나스타시야 (세르게예브나) Anastasia (Sergeyevna) Pavlyuchenkova 러시아 어명 : Анастасия (Сергеевна) Павлюченкова 1991~ 러시아 테니스 선수.
- 포팔라, 로날트 Ronald Pofalla 1959~ 독일 정치가.
- 포포비치, 파벨 (로마노비치) Pavel (Romanovich) Popovich 러시아

어명 : Павел Романович Попович 우크라이나 어명 : Павло Романович Попович 1930~2009 러시아 우주 비행사. 우크라이나 키예프 태생. 1962년 8월 12일 발사된 보스토크(Vostok) 4호의 조종사, 1974년 7월 소유즈(Soyuz) 14호의 주조종사.

- 피셔, 도널드 (조지) Donald (George) Fisher 1928~2009 미국 실업가. 의상 대기업 갭(Gap) 명예 회장. 1969년에 부인 도리스 피셔(Doris Fisher)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갭(Gap)'을 창업. '제너레이션 갭(generation gap)'이라는 발상에 연유한 상표명으로, 전미 주요 도시와 세계 주요국에서 짙값에, 단순한 디자인의 평상복을 판매, 성공을 거둬.
- 하라구치 가즈히로 原口一博 1959~ 일본 정치가. 총무상(2009. 9. ~). 당 정조부회장, 당 부간사장. 중의원 5선. 도쿄(東京)대 출신.
- 한투호바, 다니엘라 Daniela Hantuchova 1983~ 슬로바키아 테니스 선수.
- 후지이 히로히사 藤井裕久 1932~ 일본 정치가. 재무상(2009. 9. ~). 대장상, 당 간사장. 참의원 2선, 중의원 7선. 도쿄(東京)대 출신.
- 휴스, 존 John Hughes 1950~2009 미국 영화감독·각본가. '브렉퍼스트 클럽(The Breakfast Club, 1985)' 등 많은 청춘 영화와 세계적 히트작 '나 홀로 집에(Home Alone, 1990)' 시리즈를 각본·제작.
- 히라노 히로후미 平野博文 1949~ 일본 정치가. 관방 장관(2009. 9. ~). 당 간사장 대리, 비서실장. 중의원 5선. 주오(中央)대 출신.

일본 민주 하토야마 내각(2009. 9. 16. 발족)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62)
부총리·국가전략	간 나오토 菅直人 (62)
총무	하라구치 가즈히로 原口一博 (50)
법무	지바 게이코 千葉景子 (61)
외무	오카다 가쓰야 岡田克也 (56)
재무	후지이 히로히사 藤井裕久 (77)
문부과학	가와바타 다쓰오 川端達夫 (64)
후생노동·연금개혁	나가쓰마 아키라 長妻昭 (49)
농림수산	아카마쓰 히로타카 赤松廣隆 (61)
경제산업	나오시마 마사유키 直嶋正行 (63)
국토교통	마에하라 세이지 前原誠司 (47)
환경	오자와 사키히토 小澤銳仁 (55)
방위	기타자와 도시미 北澤俊美 (71)
관방	히라노 히로후미 平野博文 (60)
국가공안위원장	나카이 히로시 中井洽 (67)
금융·우정	가메이 시즈카 龜井靜香 (72)
소비자·소자화	후쿠시마 미즈호 福島瑞穂 (53)
행정쇄신	센고쿠 요시토 仙谷由人 (63)

10-5. 제88차 정부·언론의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인명 21개, 지명 2개)

(2009. 12. 3.)

[인 명]

- 크루스, 네일리 Neelie Kroes 1941~ 유럽 경쟁 정책 담당 집행 위원
(2004. 11.~). 유럽의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 네덜란드 운수·공공
사업장관(1982~1989).
- 보코바, 이리나 게오르기예바 Irina (Georgieva) Bokova 불가리아어

명 : Ирина Георгиева Бокова 1952~ 불가리아 정치가. 유네스코 (UNESCO) 사무국장(2009. 11.~). 마쓰우라 고이치로(松浦晃一郎) 사무국장 후임. 유럽 통합 담당 장관을 거쳐 외무 장관(1996~1997), 국회의원(2001~2005),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주 프랑스 대사 겸임) (2005~2009).

- 요한손, 마틸드 Mathilde Johansson 1985~ 스웨덴 출신의 프랑스 테니스 선수.
- 겐샤프트, 주디 (린) Judy (Lynn) Genshaft 1949~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 총장(2000~). 미국 대학교육협의회(ACE) 회장(2009. 2.~), 동 부회장(2007~2008).
- 캅테비에 (카스트로), 파울 (헤라르드) Paul (Gerard) Capdeville (Castro) 1983~ 칠레 테니스 선수.
- 나이두, 쿠미 Kumi Naidoo 1965~ 남아프리카 공화국 환경보호운동가. 그린피스(Greenpeace) 사무총장(2009. 11.~). 전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사무총장. 흑인차별정책 반대 활동가.
- 넌정 Nien Cheng 중국명 정넌 鄭念(Zhèng Niàn) 1915~2009 중국 출신의 미국 작가. 중국 베이징 출생. 중국의 문화 혁명 후 1980년 홍콩 경유 캐나다에 이주. 그 후 워싱턴에 정착. 1987년 문화혁명 때의 고난을 묘사한 회상록 '상하이의 기나긴 밤(Life and Death in Shanghai)'이 세계 18개 국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음.
- 엘무타와켈, 나왈 Nawal El Moutawakel 아랍 어명: نوال المتوكل 1962~

모로코 정치가·체육인. 모로코 청소년·스포츠 장관(2007~).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위원(1998), 이사, 평가위원회 위원장.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육상 여자 400m 장애 금메달 수상(1984).

- 버치, 토리 Tory Burch 친정 성 로빈슨 Robinson 1966~ 미국 여성 실업가. 패션 디자이너, 사교계의 명사.
- 서버, 제임스 James Thurber 1943~ 미국 아메리칸 대 의회·대통령 연구소 소장. 휴버트 험프리(Hubert Humphrey) 전 민주당 상원 의원(전 부통령)의 참모를 거쳐 아메리칸 대 교수(1974~).
- 아케로 (델카스티요), 세르히오 (레오넬) Sergio (Leonel) Agüero (del Castillo) 별명 쿤 Kun 1988~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 아알라,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두아르테) Francisco Ayala (García-Duarte) 1906~2009 스페인 작가·법률가·사회학자. 남부 그라나다(Granada), 안달루시아(Andalusía) 출신. '개의 죽음' 등 소설과 에세이를 발표, 노벨 문학상 후보에 몇 번 오르내렸으나, 스페인 시민전쟁 후 1939년 프랑코(Francisco Franco)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아르헨티나에 망명. 그 후 1978년 귀국.
- 아벨라, 조지 George Abela 1948~ 몰타 정치가. 대통령(2009~).
- 오킨조이웨알라, 응고지 Ngozi Okonjo-Iweala 1954~ 나이지리아 정치가. 세계은행(IBRD) 전무이사(2007. 10.~). 나이지리아 재무 장관(2003~2006), 외무 장관(2006. 6.~8.).

- 은디아예, 마리 Marie Ndiaye 1967~ 프랑스 소설가·극작가. 세네갈계. 신작 소설 ‘강인한 세 여성(Trois femmes puissantes)’으로 2009년 11월 2일 공쿠르(Goncourt)상 수상.
- 채플린, 시드니 (얼) Sydney (Earle) Chaplin 1929~2009 미국 배우. 희극왕 찰리 채플린과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여배우 리타 그레이(Lita Grey)가 낳은 아들. 1952년 아버지의 ‘라임라이트(Limelight)’로 영화에 데뷔, 그 후 서부극 등에 출연. 56년 뮤지컬 ‘벨스 아 링잉(Bells Are Ringing)’으로 토니상을 수상.
- 트레닌, 드미트리 Dmitri Trenin 1955~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모스크바센터 소장. 모스크바 태생. 과학 아카데미 미국 캐나다 연구소의 외교사 박사(1984). 미국 자본 싱크탱크 모스크바센터(1994~2008)를 거쳐 2008년 현직.
- 프루스트, 장폴 Jean-Paul Proust 1940~ 모나코 정치가. 국무 장관(2005. 6.~).
- 클레이스테를레이, 헤라르트 Gerard Kleisterlee 1946~ 필립스(Philips) 최고 경영자. 네덜란드계 독일인.
- 테세이라, 마크 (찰스) Mark (Charles) Teixeira 1980~ 미국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선수.
- 험프리, 호레이쇼 휴버트 Hubert H(oratio) Humphrey 1911~1978 미국 정치가. 부통령(1965~1969). 상원 의원(1949~1965, 1971~1978). 미니아폴리스(Minneapolis) 시장(1945~1948).

[지 명]

- 기노완 宜野湾 일본 오키나와(沖縄) 현 중남부에 위치한 시. 면적 19.68km², 인구 90,795명(2007. 3. 31.).
- 후텐마 普天間 일본 오키나와(沖縄) 현 기노완(宜野湾) 시에 위치한 미국 해병 항공 기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에 의해 신설됨. 넓이 약 4.9km², 활주로 2,743m.

10-6.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 심의 결정사항

(인명 13개)

(2009. 11. 16.~11. 30.)

[인 명]

- 날레스, 안드레아 (마리아) Andrea (Maria) Nahles 1970~ 독일 정치가. 사민당(SPD) 간사장(2009~).
- 릴링, 헬무트 Helmuth Rilling 1933~ 독일 합창 지휘자. 바흐(Bach) 음악의 거장으로 알려짐. 슈투트가르트 바흐 콜레기움(Stuttgart Bach Collegium) 악단과 게힝거 칸토라이(Gähinger Kantorei) 합창단의 지휘자.
- 머피, 스콧 (매슈) (Matthew) Scott Murphy 1970~ 미국 정치가. 하원 의원(2009~).
- 블랑샤르, 올리비에 (장) Olivier (Jean) Blanchard 1948~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 프랑스 인.

- 샤오샹첸 肖向前 1918~2009 중국 외교관. 랴오닝(遼寧) 성 출신. 중·일 우호협회 부회장. 외무부 아시아 국장(1981~1982), 주 방글라데시 대사(1983~1985)등을 역임.
- 솔츠, 올라프 Olaf Scholz 1958~ 독일 정치가. 노동사회장관 (2007~2009).
- 아라오스, 구스타보 Gustavo F. Araoz 1948~ 국제기념물유적회의 (ICOMOS) 회장(2008. 10.~). 쿠바 출신 건조물 보호학자. 이코모스 (ICOMOS)는 문화재 전문가 집단이 세계 유산 후보지를 시찰하고, '등록' 또는 '연기' 등 결과를 유네스코(UNESCO)에 답신하는 단체로 회원은 전 세계에 약 1만 명이 있음.
- 크라프트, 하넬로레 Hannelore Kraft 1961~ 독일 정치가. 사민당 (SPD) 부당수(2009. 11.~).
- 판시에리, 플라비아 Flavia Pansieri ?~ 유엔 자원봉사단(UNV) 사무 국장(2008. 2.~). 이탈리아 인.
- 핑리위안 彭麗媛 Peng Liyuan 1962~ 중국 가수·예술 감독. 중국군 소장(한국의 준장). 국가부주석 시진핑(習近平)의 부인.
- 플랫폼, 레이철 (엘리자베스) Rachael (Elizabeth) Flatt 1992~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 세계 선수권대회 은메달 수상(2008, 2009).
- 헤롤프, 구닐라 Gunilla Herolf 1945~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선임 연구원. 스톡홀름대 박사. 유럽 안전 보장과 구미 관계

전문가.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SIIA)를 거쳐(1988~2007) 2007년부터 현직.

- 힌치, 모리스 Maurice Hinchey 1938~ 미국 정치가. 하원 의원(1993~).

11. 2009년 하반기 언어 정책 토론회

11-1. 2009년 제5회 언어 정책 토론회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 제5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주제: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재와 과제
- 발표자: 손호민(하와이대학교 교수, 한국학연구소 소장)
- 일시: 2009년 10월 30일(금요일) 11: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손호민 하와이대 동아시아 어문학과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향후 한국어 교육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CIA, 법무부 FBI, 국무부 FSI, 국방부 DLI와 같은 정부 기관과 50곳의 초·중·고교, 148곳의 대학교, 약 1,000개의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미국 K-12에서의 한국어 프로그램 실태 조사(손호민 외)’에 따르면, 올 8월에 66개교 중 19개교에서 한국어가 폐지되었고 단 3개교에서만 한국어가 신설되었다. 현재 50개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K-12 한국어 프로그램은 대부분 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98%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과목의 외국어 선택 과목 중 하나이며, 90%이상의 학교에서 매일 한 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K-12 한국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글 학교 모두 다양한 한국어 교재 및 멀티미디어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교사 연수와 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순회 교사 제도, 한글 학교 간 정보 공유, 한국 정부 및 기업체 지원, SAT II 유지 및 고등학교 성적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AP개발, 통일된 평가 방법 개발, 한국어 습득의 장점 홍보,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활용,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pre-college)실시, 하기 한국 단기 유학 지원들이 필요하다.

2007년에 창설된 하와이 대학 한국어 플래그십 센터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위 인정 과정을 개설하였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언어 습득 이론과 실재에 근거하여 소수 정예의 학생들로 학급을 구성하고 과제 중심의 토론과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현지 몰입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플래그십 센터에서는 이러한 플래그십 모델을 비플래그십 대학으로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정규 학교에 100% 흡수시켜 주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어 교육이 지속화되고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연 후에는 미국 내 한국계뿐만 아니라 비한국계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의 장점을 홍보할 방법,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개발을 위한 현지 교사와 국립국어원의 협력과 공동 집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 발표장〉



〈발표자 손호민 교수〉

11-2. 2009년 제6회 언어 정책 토론회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 제6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였다.

- 주제: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언어 정책 현황
- 발표자: 박정아(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학예 연구사)
- 일시: 2009년 11월 24일(화요일) 10:30~12: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박정아 연구사의 “말레이시아와 타이의 언어 정책 현황” 발표 모습〉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어교육진흥과의 박정아 학예 연구사가 지난 10월 18일에서 24일에 걸쳐 말레이시아와 타이의 언어 정책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양국의 언어 정책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말레이시아와 타이는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사회 통합과 유지를 위해 언어 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교육부 소속 기관인 ‘언어문화원’이 문학 출판 분야와 연계하여 언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타이의 경우는 총리실 직속 기관인 ‘왕립 학술원’에서 언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양국의 언어 정책 기관은 상당히 높은 위상과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 공식어의 올바른 사용과 교육을 진흥하는 정책과 더불어 소수어의 보존 및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언어문학원은 1956년 교육부 산하 도서출판국으로 시작하여, 언어 분과, 문학 분과, 출판 분과의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85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큰 규모의 조직이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공식어는 말레이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말레이어, 영어(망글리시), 중국어의 3개 국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민족·교육 수준에 따라 개인마다 자신들의 모어를 다르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회 통합을 위하여 최근 ‘1 말레이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 언어의 달’ 행사를 한 달간 추진하는 등 말레이시아에서의 영어 발전에 대응하여 공식어로서의 ‘말레이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민족·종교의 다양성 인정을 통한 민족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다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와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전공이나 직업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민족에 따라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타이의 왕립 학술원은 국민들의 올바른 태국어 사용 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언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민족 간의 공존을 위한 언어의 다양성 정책 및 소수 언어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민족들의 타이 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뿐만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타이 경제 발전과 국제 교류를 위해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주타이 기업인, 유학생, 관광객 등 외국인을 위한 타이어 교육 진흥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간에 언어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기관들의 유사 사업의 공동 연구 추진이나 해당국의 연간 보고서 공유, 또는 국제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

다. 또한 국내에 소개되지 않아 언어 정책 관련 정보가 부족한 국가의 언어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12. <국립국어원 공고 제2009-39호>

2009년 제2차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결과 공고

국어 기본법 제19조,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2009년도 제2차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심사 결과>

심사 회차	심사 신청자	2급 합격자	3급 합격자	총 합격자	불합격자
2009년 제2차	390명	303명	63명	366명	24명

1. 결과 확인: 국립국어원 교원 자격 누리집(<http://www.korean.go.kr/teacher/>)에서 확인 *신청 당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확인
2. 자격증 교부: 11월 하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
3. 문의전화: 02-2669-9671, 02-2669-9672
전자우편: kjw770419@korea.kr

Ⅲ.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1. 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정 교과서 편찬진 어문 규범 교육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국정 교과서 편찬진에 대한 어문 규범 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 28일(월) 13시부터 18시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국정 교과서 편찬진 15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번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획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과서와 국어를 관장하는 두 기관이 함께 이러한 교육을 진행한 것은 교과서의 표기·표현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어문 규범에 충실한 국정 도서 편찬, 국정 도서 표기·표현의 정확성 제고, 국정 도서 편찬진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어문 규범 일반에 대한 강의에 이어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방법과 내용에 대한 소개, 질의응답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의 원리와 적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교과서 편찬 시에 궁금했던 사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발생하는 표기·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게 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2006년에 교과용 도서의 표기·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국정 도서 편찬진 대상 어문 규범 교육
- 일시/장소: 2009. 9. 28(월) 13:30~18:00/국립국어원 강당
- 교육 일정
 - 어문 규범 일반: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 등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정희창)(국립국어원 학예 연구관)
 - 교과서의 띄어쓰기: 이선웅(충남대학교 교수)
 - 사전 이용 안내 및 질의 응답: 김한샘(국립국어원 학예 연구사)



〈어문 규범 교육 모습 1〉



〈어문 규범 교육 모습 2〉

2. 표준국어대사전, 이렇게 활용하세요

- 단어 뜻만 찾는 사전 찾기는 이제 그만 !

사람들은 국어사전을 흔히 모르는 말의 뜻이나 쓰임을 찾는 데 이용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보 검색 시대, 그 정도로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08년 새로운 말의 쓰임을 보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개정하였고 이를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정 표준국어대사전은 단순히 단어만을 검색할 수 있었던 이전의 사전과는 달리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며 사전의 정보를 훨씬 쉽고 다채롭게 찾을 수 있는 사전이다.

흔히 국어사전은 모르는 말의 뜻이나 쓰임을 찾을 때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어사전은 그 이상의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우리말의 보고’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개정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러한 숨겨진 보물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이용법만 잘 안다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그 작곡가 이름이 차…… 무슨 스키였더라?

라디오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올 때 친구에게 잘난 착하며 한마디 한다. “아 나 이 곡 알아. 이 곡이 그 유명한 차…… 아, 그 작곡가 이름이 뭐였지? 차 무슨 스키였는데…….” 이런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창에 ‘차*스키’라고 적어 넣고 ‘찾기’를 누르면 고민 끝! 화면에는 그토록 혀끝에서 맴돌던 ‘차이콥스키’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와 ‘?’ 기호를 이용하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기호는 단어의 일부만 알 때 사용할 수 있다. 검색창에 아는 부분만

적고 모르는 부분에는 이 기호를 넣어 주면, 아는 부분을 포함한 모든 단어를 찾아 준다. 예를 들어 사전에 등재된 다양한 ‘소나무’ 이름이 알고 싶다면 ‘*소나무’라고 적고 ‘찾기’를 누르면 된다. 화면에 15가지의 소나무 이름이 가지런히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기호는 글자 수를 알고 있을 때 이용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왕비의 이름을 ‘세○○드’로만 알고 있다면, 검색창에 ‘세???드’를 적어 주면 된다. 검색된 ‘세에라자드’와 ‘세이크핸드’ 중 원하는 표제어가 어떤 것인지는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은?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 불렀던 노래로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은?”이라는 노래가 있다. 여기에 맞는 말을 찾으려고 머리를 쥐어짜거나 종이로 된 국어사전을 이리저리 뒤적이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십자말풀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가? ‘네’로 시작하고 ‘리’로 끝나는 세 글자 단어는? ‘네거리, 네다리, 네뚜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럴 때에도 ‘*’ 기호를 사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리’를 검색하면 원하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원하는 단어 목록도 클릭 몇 번이면 검색 완료!

출판사에 근무하는 ㄱ씨. 얼마 전부터 우리말 동사 중 ‘-거리다’와 ‘-대다’로 끝나는 말의 목록을 구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 종이 사전을 뒤적이며 목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끝은 보이지 않고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ㄱ씨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자세히 찾기’ 기능을 알고 있었다면 한숨 대신에 휘파람을 날렸을 텐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찾기 위해 사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세히 찾기’가 마련되어 있

다. ‘자세히 찾기’를 이용하면 품사별로 자료를 뽑을 수도 있고 특정 전문어만 골라서 뽑을 수도 있다. 동사 중 ‘-거리다’로 끝나는 말의 목록이 필요하다면 ‘자세히 찾기’로 들어가서 ‘표제어-끝 문자-거리다’를 설정한 후 품사에서 ‘동사’를 지정하면 된다. ‘찾기’를 누르고 몇 초만 기다리면 3,866건의 ‘-거리다’로 끝나는 동사 목록이 검색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표제어나 원어 등에 특정 글자가 들어간 전문어의 목록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 전문어 중에서 ‘학’을 포함하고 ‘과’로 끝나는 말을 찾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검색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공하는 찾기 기능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표제어, 원어, 뜻풀이 등 정보별로 원하는 조건을 두는 복잡한 검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십사절기에 속하는 단어만을 찾으려면 ‘자세히 찾기’의 뜻풀이 검색 기능을 활용한다.

□ ‘승냥’이 들어간 속담을 알고 싶다고요?

6년째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A씨는 제법 한국어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속담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 대화를 할 때 적절한 속담을 구사할 수 있다면 한층 멋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긴 문장의 속담을 외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속담 문제도 절반은 해결. 얼마 전 어학당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속담만 따로 검색하여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어 몇 개만을 알고 있어도 그 단어가 포함된 속담을 찾아볼 수 있으니 속담 찾기가 한결 수월하다. 오늘도 대화 중 나왔던 속담을 집에 와 찾아본다. 전체 문장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물’과 ‘승냥’이 들어간 속담이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따로 보기’에서 ‘속담’으로 들어간 후 ‘포함 문자-승냥’으로 조건을 넣어 검색을 한다. 검색된 8개의 속담 중 ‘우물’이 들어간 것은 2개뿐. 문맥을 떠올려 보니 찾던 속담은 ‘우물에 가 승냥 찾는다.’였다. 속담 외에 관용구, 방언, 북한어, 고유어가 궁금할 때에도 ‘따로 보기’를 이용하면 된다. 전체 목록을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도 있다.

□ 아~ ‘뽕’이 포르투갈 어에서 온 말이구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뽕’, ‘고무’, ‘담배’, ‘구두’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완전히 우리말에 동화되어 마치 고유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원적으로 이 말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으로 들어가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으면 이러한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 준다.

흔히 사전을 찾으면 뜻풀이나 쓰임만 보고 넘어가지만 조금 더 눈을 크게 뜨면 재미난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뽕’을 검색하면 뜻풀이와 용례 다음에 【<<포>pao】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뽕’이라는 말이 포르투갈 어 ‘pao’에서 왔다는 것

을 알려주고 있는 어원 정보이다. 여기에 쓰인 기호들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 첫 화면의 ‘일러두기’에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어원 정보 외에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련된 단어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글을 쓰다가 ‘어머니’와 관련된 다른 단어가 궁금해진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를 검색하면 된다. 흔히 보던 뜻풀이와 용례 외에 다른 정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본말, 준말 정보와 ‘참고 어휘’이다. 참고 어휘는 단순히 참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어머니’에는 남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자당(慈堂),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선대부인(先大夫人),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를 이르는 ‘엄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말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 있고 다양한 찾기가 가능한 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사전을 뜻풀이 확인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고급 휴대 전화를 구입하고도 통화용으로만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숨어 있던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양한 기능을 백 퍼센트 활용하여 사전 활용의 달인이 되어 보자. 사전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말에 대한 지식도 차곡차곡 쌓여 갈 것이다.

3. 2009년 하반기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

3-1. 언론·출판인 대상 『교정·교열의 원칙과 실제』 교육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언론인과 출판인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등 교정, 교열에 필요한 어문 규정 관련 지식을 심화하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 어휘, 표현의 교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정·교열의 원칙과 실제』 과정을 운영하였다.

10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 과정으로 진행된 『교정·교열의

원칙과 실제』 교육은 현장에 있는 언론·출판인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한 경험이 있는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정 전문가들(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정호성, 띄어쓰기-정희창, 외래어표기법-김세중)과 오랜 세월 현장 실무로 다져진 출판 언론계의 교열 전문가들(고정욱(소설가), 최성우(중앙일보), 이병갑(국민일보))이 강의를 이끌었다.

3-2. 2009년 11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09년 11월(제216기, 제217기) 국어문화학교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1) 교육 기간

제216기: 2009년 11월 9일(월) ~ 11월 13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제217기: 2009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2)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3) 교육 내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훈련,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르게 쓰기, 보고서 작성법, 생활 글쓰기

4)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 위치, 교통편, 숙박 시설 안내

(국어문화학교 누리집-교육자료-참고자료 참조)

- 전화: (02) 2669-9752, 2669-9729

- 전송: (02) 2669-9747, 9787

3-3.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교육 운영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 1) 교육 기간: 2009년 11월 23일(월) ~ 11월 25일(수)
(3일간 19시간, 비합숙)
 - 2) 이수 강좌: 공공 언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 국어 관련 약 15개 강좌
 - 3) 교육 내용
 - 공공 언어 관련 내용: 공공 언어의 중요성 및 올바른 사용, 국어 책임관의 역할, 바른 말 쓰기 운동 모범 사례 발표
 - 국어원 관련 사업 내용: 우리말 다듬기, 공공 언어 지원 정책 및 국어원 정보 활용
 -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한글,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석금
 - 업무에 유용한 국어 강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 기타: 특강(김수업), 분임 토의(한글사랑지원단 보조강사 활용)
- * 분임 토의 주제: 정부, 지자체의 공문서 및 홈페이지 용어 다듬기
(5개 분임)

3-4. 국어 선생님도 국어 배워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을 위한 국어 전문 교육 과정(2010. 1. 4.~1. 22. 5일씩 3기)”을 개설한다. 올해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교사 대상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은 매년 신청서 접수 하루만에 신청자가 초과되어 접수를 마감할 정도로 전국의 교사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교사들 어문 규정과 국어 관련 교양을 넓힐 좋은 기회

국립국어원의 교사 대상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은 교사들에게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지도에 필요한 국어 관련 교양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기간에 국립국어원에서 개설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 과정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직무 연수 과정으로 지정(1999년)된 후 현재까지 10년간 총 38회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을 수료한 교사는 모두 1,377명에 이른다.

교사 대상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의 핵심 과목은 어문 규정과 관련된 과목들이다. 교사들도 자주 막히는 어문 규정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글 맞춤법의 이론과 실제’,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익히게 된다. 또한 ‘우리말 다듬기’, ‘문장 바르게 쓰기’ 등의 과목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고 문법에 맞게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많이 작성하는 가정 통신문, 상장 문구 등에 대해 고찰하는 ‘학교 생활문 쓰기’, 청소년과의 바람직한 대화 방법을 알려 주는 ‘청소년과의 대화법’, 효과적인 논술 지도법을 모색해 보는 ‘국어 논술의 이해’도 교사들에게는 요긴한 과목이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이 과정을 수료한 소감으로는 ‘평소에 국어를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지 인식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수업하면서 막혔던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국어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강의였다.’ 등 국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깨달은 바가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2010년 1월의 교사 대상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은 2010년 1월 4일(월)부터 1월 22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매주 5일씩 총 3기(기별 정원: 40명)

를 비합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기간은 2009년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2월 11일 오후 6시까지다. 교육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의 공지 사항 중 “2009학년도 국어문화학교 국어 전문 교육 과정 동계 교사 직무 연수 운영 계획”을 참조하기 바란다.

1. 교육 기간

- 제1기: 2010년 1월 4일(월) ~ 1월 8일(금) (5일간, 비합숙, 40명)
- 제2기: 2010년 1월 11일(월) ~ 1월 15일(금) (5일간, 비합숙, 40명)
- 제3기: 2010년 1월 18일(월) ~ 1월 22일(금) (5일간, 비합숙, 40명)
- * 기수별 초·중등 교사 구분 없이 모집함.

2.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3.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중1층 세미나실)

- 위치, 교통편, 숙박 시설 안내
(국어문화학교 누리집-교육자료-참고자료 참조)
- 전화: (02) 2669-9752, 2669-9729
- 전송: (02) 2669-9787, 9747

4. 신청 기한: 2009년 11월 23일 09:00부터 12월 11일 18:00까지 (선착순)

- * 신청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기한 이전에 마감할 수 있음.

5. 신청 방법: 국어문화학교 누리집(www.korean.go.kr/kculture/)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

- * 수강 신청 시 연수 지명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람.

3-5.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제6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자원봉사자 모집

자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조건:	현지의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강요하지 않을 분
파견 기간:	1년(2010.1~2010. 12)이며 연장 가능함
근무 조건:	주당 20시간 이내 한국어 수업
대우:	숙사와 왕복 항공료 제공, 월급은 체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임 (기본적으로 자원 봉사임)
인원:	1명 또는 2명
제출 서류:	지원서(정한 양식), 이력서(자유 양식)
제출처:	양식은 홈페이지(www.scripta.kr)에 있으며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할 것(ciacial009@gmail.com)
제출 기한:	2009년 10월 24일(토)
면접:	2009년 10월 31일(토) 오후 3시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	개별 통보함

관련 누리집 바로가기 ==>

http://www.scripta.kr/scripta_kr/m_05_a/283

3-6. 국립국어원 제1기 해외 통신원 선발 및 운영 계획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소식지 「쉽표와 마침표」와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통해 다양한 해외 언어 정책 동향과 한국어 교육 현황 소식을 전할 국립국어원 제1기 해외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국어와 언어생활, 한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바탕으로 각국의 생생한 언어 정책 현장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모집 공고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립국어원의 활동과 언어 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진 목적

- (해외 정책 사례 수집) 해외 언어 정책 기관의 운영 사례와 주요 사업 및 연구 결과 동향 수집, 현지 한국어 교육 현황 소개 등
- (언어 정책 전문가 육성) 각국 유학생의 언어 정책 조사 및 행사 취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언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해외 언어 정책 네트워크를 마련

□ 통신원 모집 개요

- 통신원 활동기간 : 2010년 상반기 ('10년 1월~'10년 6월)
- 선발 규모 : 아시아, 유럽, 미주 등 해외 거주자 10명 내외

자격 요건

- 해외 현지에 거주하며 언어·외국어·한국어 교육 등 관련 전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 이상)
- 현지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기획력과 기사 작성 능력 및 사진·동영상 편집 등 매체 활용 능력을 갖추고 성실한 취재 활동이 가능한 자
- 블로그 운영 등 그동안 관련 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 부여

○ 활동 내용

- 활동 기간 동안 매월 취재 원고 1편, 자료 조사 1편씩 의무 제출
- 취재원고: 언어 정책, 주요 학계 동향 및 연구 내용, 언어 정책 및 연구 기관 관계자 인터뷰 및 관련 행사 취재
- 자료 조사: 국어원이 요청하는 정책 사례 조사
(월별 특정 주제 선정)
- 원고 뿐 아니라 취재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국립국어원 해외 현지 조사 및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시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가능

○ 통신원 혜택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및 활동 증명서 발급
- 소정의 원고료 지급, 우수 통신원 선정 격려금 지급 및 활동 연장
- 제출된 원고는 내부 평가를 통해 원고료 차등 지급

원고분량	등급	지급액	평가기준
A4 2매 이상 (휴면명조 12pt)	가(85점)	15만원	1. 해외 정보의 현장성, 참신성 (30점)
	나(70점)	10만원	2. 정책적 시사점, 국어원 업무 연계성 (30점)
단 신		5만원	3. 제출기한 엄수, 분량 및 완결성 (25점)
			4. 현장 사진, 동영상 등 매체 활용 (15점)

- 활동 원고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등에 소개
- 취재 내용 관련 국어원 연구 결과물 등 관련 자료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09. 12. 5.(금)~12. 24.(목)
- 제출 서류: 신청서, 재학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등 증빙
자료 통신원 활동 계획서(양식과 분량은 자유)
※ 본인이 작성한 기사, 또는 논문 등 자료 제출 시 심사에 고려
- 제출 방법: 전자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herim@korea.kr
- 전형 방법: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전화 면접
- 최종 발표: 2009년 12월 31일(목)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 문의: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이혜림 사무관(82-2-2669-9712)